

3.1혁명 100주년 기념 '제5차 인천역사포럼'

일제말기의 강제동원과 부평의 조병창 사람들

발표 : **이상의**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일시 : 2019년 **8월 22일** (목) 오후 6시 30분

장소 : 부평구청 3층 중회의실

- 사회자 **강태욱**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장)
- 토론자 **손민환**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사)
곽경전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집행위원장)
박명식 (부평문화재단 이사)



- 주최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후원 :  국가보훈처  인천광역시
- 문의 : 032)862-5353

순서

사회 : 강태욱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장

- 발표 : 구술로 보는 인천조병창과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경험 ----- 1
이상의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 토론 : ‘구술로 보는 인천조병창과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경험’에
대한 토론문 ----- 44
손민환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부평 캠프마켓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47
곽경전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일제말기의 강제동원과 부평의 조병창 사람들 ----- 51
박명식 부평문화재단 이사

<발표문>

구술로 조명하는 일제하의 강제동원과 인천조병창

이상의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1. 서언 1
2. 인천조병창 동원과정과 조병창의 구조 4
 - 1) 인천조병창 동원과정과 방식 5
 - 2) 인천조병창과 기능자양성소의 구조 7
3. 인천조병창의 노무자 구성과 노동실태 12
 - 1) 노무자 구성과 노동현장에서의 역할 12
 - 2) 동원 노무자의 일상과 노동환경 17
 - 3) 노동현장의 단절과 통제 23
4. 강제동원에 대한 인식과 노동자의 저항 25
 - 1) 강제동원과 일제에 대한 인식 25
 - 2) 노무자의 저항, 탈출 28
 - 3) 해방의 감동과 귀환과정 30
5. 결어 35

1. 서론

이 글은 일제 말기 일본육군인천조병창에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의 경험 세계를 그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조선 내에서는 유일하게 설치된 조병창이었던 인천조병창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육군이 인천의 부평지역에 설치한 무기제조 시설이었다. 중일전쟁 도발 이후 1938년 총동원체제를 선포한 일제는, 조선 병참기지화정책의 일환으로 1939년 조선에 조병창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본토보다 한반도에서 戰場에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했기 때문이다. 인천조병창에서는 1941년 개창된 가진 이래 매달 소총 4천정을 비롯한 방대한 분량의 무기를 생산하여 전장에 공급하였다.¹⁾

1) 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육군은 일본 본토를 벗어나 조선과 남만주에 각각 1곳씩 조병창을 설치하였다. 조선에서 조병창 부지로 선정된 부평은, 공업이 발달한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

인천조병창은 대규모의 강제동원이 행해진 국내동원의 대표적인 시설 중 하나다. 무기를 만들고 토목공사를 하고 운반을 하던 1만명 이상의 군속과 학생들이 모집과 징용, 근로보국대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인천조병창에 동원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같은 인천조병창은 일본 본토 밖에 있었던 군사시설로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 관련 자료는 조병창의 인원모집이나 명사초청 등의 행사를 알리는 당시의 신문기록과 그곳에 동원되었던 몇몇 개인이 작성한 수기와 구술만이 남아 있다.²⁾ 따라서 인천조병창으로의 동원과정과 조병창의 실제 규모와 시설, 작업장 구성, 노동실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인천조병창에 관한 연구성과 역시 드물어, 인천조병창과 이후 미군부대로 이어지는 역사를 정리한 한만송의 『캠프마켓』과 인천조병창의 강제동원 양상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이상의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이 있을 뿐이다.³⁾ 인천 지역 혹은 조병창에 관련되는 기록으로는 宮田節子が 펴낸 『朝鮮軍概要史』에서 일부 관련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참고가 되고, 주변 연구성과로는 김미현의 「전시체제기 인천지역 학생 노동력 동원」, 김현석의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의 형성배경과 환경」, 이병례의 「일제말기(1937~1945) 인천지역 공업현황과 노동자 존재형태」 등이 있는 정도다.⁴⁾

일본 본토 내에 있던 조병창에 관련된 자료라면 제대로 보관이 되어 있겠지만,⁵⁾ 인천조병창의 경우 해방 직후 미군이 진주하기까지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조병창에는 일본군이 그대로 주둔하면서 일본으로 가져갈 수 없는 문서를 통째로 소각하였다.⁶⁾ 따라서 관련 자료를 찾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조병창에서 직접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내부의 실상을 전해줄 수 있으므로 그들의 구술은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필자는 일제 말기 인천조병창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에게 대한 쉽지 않은 구술을 시도하였다. 2017년 총 12명의 조병창 강제동원 경험자를 대

서, 인천항에서 멀지 않고 경인선이 인접해 있어 곧바로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게다가 부평평야가 있어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었다. 일본육군은 이곳에 조병창을 만들어 중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선으로 곧바로 무기를 공급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상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 25, 2016.8 참조.

- 2) 徐泰源, 『徐泰源 自叙傳 回想과 隨筆選』, 一潮閣, 1984 ; 宋基澈, 『내 인생 黑字인가 赤字인가 日帝下 挫折된 삶』, 保景文化社, 2004 ; 강명순, 「분단 이후 엇갈린 운명. 남과 북의 제자들이 만나 스승의 아픔 보듬을 날은 언제…」, 『민족 21』 72, 2007.3 ;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의 전시공업인력양성정책 : 인천·대구공업직업학교 출신자들의 구술-양재형』, 2009.
- 3) 한만송, 『캠프마켓』, 봉구네책방, 2013 ; 이상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 25, 2016.8.
- 4) 宮田節子 編·解説,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 이병례, 「일제말기(1937~1945) 인천지역 공업현황과 노동자 존재형태」, 『인천학연구』 10,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2009 ; 김미현, 「전시체제기 인천지역 학생 노동력 동원」, 『인천학연구』 12,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2010 ; 심재옥, 「『工員名票』를 통해 본 戰時體制期 舊日本陸軍造兵廠의 조선인 군속동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1 ; 김현석,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의 형성배경과 환경」, 『부평 산곡동 근로자주택』, 부평역사박물관, 2014 ; 조건, 「전시 총동원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통제와 동원」,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5.
- 5) 패전 직후 日本兵器工業會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조병창의 시설과 인원 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자료집 『終戰直後の造兵廠現況綴』(1945)을 작성한 바 있다. 그런데 인천조병창은 그 조사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 6) 문서 소각에 대해서는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의 구술을 바탕으로 본론 4장 3절에서 상술한다.

상으로 총 15회에 걸친 구술을 진행하였다.⁷⁾ 면담 대상자는 1941년 조병창 개창 이후에 동원된 사람들로써, 동원 당시 만 13~17세였으며, 구술을 채록할 당시에는 80대 후반~90대 전반의 나이였다. 그들의 구술을 되새김하고 점검하는 사이에 또 2년의 시간이 지나갔다. 각 구술자의 인적사항과 동원기간, 조병창에서의 담당 업무와 특기사항 등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 1> 구술자별 동원 개황과 조병창 내에서의 담당 업무 (동원시기 순)

성명	출생 연도	동원 지역	동원 당시 학력	동원 기간	조병창 담당 업무	동원 관련 내용
김우식	1925. 10.08	충남 청양	국민학교 졸	1941.03.01. ~1944.12.15	제2공장에서 총검 방아쇠 연마	돈 벌고자 지원. 탈출 후 헌병대에 지명수배, 평양군무예비훈련소 이중동원.
왕명근	1927. 06.21	전북 익산	국민학교 졸	1942.03 ~1945.08.30	제2공장에서 단검두 제작	돈 벌고자 지원. 선반 기계에 엄지손가락 일부 절단
지영례	1928. 10.15	인천 부평	소학교녀 2학년 재학	1942.09 ~1945.08.15	병원(의무과) 서무과 근무	재학 중 '정신대' 동원을 피해 중도 자퇴 후 지원
최덕원	1927. 08.05	충남 보령	졸 (청년훈련소 2년)	1943.01 ~1945.08.30	제2공장에서 기계수리, 장부정리	경찰의 지원병 강요를 피해 군속으로 지원, 해방 후 문서 소각 목격
장화두	1928. 01.10	경북 칠곡	국민학교 졸	1943.04.01. ~1945.07.15	제2공장에서 방아쇠 제조	공부를 시켜 준다고 하여 기능자양성소 입소, 고역에 탈출하여 도피 도중 해방됨.
변명식	1928. 08.02	경기 여주	국민학교 6학년 재학	1944.03 ~1945.04	2공장에서 검사 후 총 노리쇠에 마크를 새김.	6학년 때 학교서 뽑혀 감. 너무 엄격하여 탈출 후 피신하던 중 해방됨.
김상현	1928. 02.25	강원 춘천	국민학교 고등과 졸	1944.04.01. ~1945.08.31	1공장 서무과 작업반. 2공장 으로 주물 배달	학교 졸업 직후 진학 대신 기능자양성소 입소
윤용관	1929. 09.12	충남 공주	국민학교 5학년 재학	1944.05 ~1945.08.15	지하 검사계에서 총검 완성품 검사	5학년 때 학교서 임원 2명이 뽑혀 감. 작업 도중 옷이 올랐고 이후 한센병 발병
김학수	1929. 01.24	경기 여주	국민학교 졸	1945.01 ~1945.08	철근, 목재를 나르고 조병창 배수로 공사	부친에게 영장이 나와 대신 징용. 형은 징병되어 일본에 가 있었음.
유만종	1927. 08.20	경기 김포	국민학교 졸	1945.03 ~1945.08.15	조병창 안에서 기차 물자 하역	경성전기 근무 중 재직자 서류처리 미비로 징용
오상기	1927. 12.13	서울 종로	동성상업학교 졸	1945.06 ~1945.08.17	시미즈구미(清水組)에서 터널 파는 업무의 차트 관리	총독부 운수부 근무. 징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일본인 수위와 다투자 영장 발부
전진수	1930. 02.05	경기 고양	경신중학교 2학년 재학	1945.07 ~1945.08.15	부평 산중턱 터널 뚫는 현장서 돌을 나름.	학교에서 2학년 단체동원. 일본 군인들과 방어진지 구축. 미쓰비시 사택에 거주.

7) 구술 대상자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강제동원과평화연구회의 정혜경 선생에게 도움을 받았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구술 대상자들은 이미 70년 넘은 이야기라 생각도 안한다고, 들어서 뭐하느냐고 손사레를 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구술 이후 대개는 그간 남들에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해원의 기회를 가진 듯이 보였다. 대부분 그간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나 말을 했어도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했다. 구술 장소는 구술자가 머무는 자택이나 그 주변을 택했는데, 서울에서 경남에 이르기까지 전국으로 가게 되었다. 겨우 12명의 구술을 통해서도 인천조병창의 조선인 강제동원이 전국에 걸쳐 진행된 양상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의 구술을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은 조병창 동원과정, 조병창의 구조와 노동실태, 임금과 숙식 환경 등의 노동조건, 규율과 그에 대한 저항, 강제동원에 대한 인식과 해방 후의 귀환과정 등을 확인하여, 인천조병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인천조병창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측면이 미지 상태이므로, 이들의 구술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파악해 나가는 것이 결국 조병창에 대한 인식의 최대치가 될 것이다.

본고는 온전히 구술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표현이나 용어가 다소 어색해도 가능하면 구술 원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그들의 말투와 감정을 살리고자 하였다. 아울러 학술적인 목적으로 구술을 활용하는 데 흔쾌히 동의해준 구술자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실명 그대로 사용한다.

2. 인천조병창 동원과정과 조병창의 구조

1) 인천조병창 동원과정과 방식

1939년부터 인천조병창 측은 공장 건설을 위해 강화, 김포 등 주변 지역에서 근로보국대를 동원했다. 그들에 비해 1941년 개창 이후 조병창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구술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대부분 국민학교 졸업생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황국신민화 교육을 행하여 학생들이 전시하의 병사 혹은 노동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바로 공장생활에 적응하도록 하였고, 조병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⁸⁾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일반인의 경우에는 ‘모집’의 형식과 ‘징용’의 형식으로 강제동원되었다. 모집의 경우는 인원이 부족해서 시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영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 지역으로 부족한 인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전달되었다. ‘모집’에 관련된 내용이 행정기관을 통해 전달되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는 지역민들을 부추기면서 알선하고 모집에 응하도록 재촉하였다. 군속이나 지원병이나 마찬가지였다. 인천조병창의 경우도 언제 몇 명을 모집한다고 하는 공문이 전달되었고, 그에 맞추어 각자 찾아가서 지원을

8) 다만 초반에 인천조병창의 건설 공사를 위해 경기도 김포나 강화 등 주변지역에서 근로보국대로 동원된 사람들은 아직 공장 생활과는 무관하였으므로 무학인 경우가 많았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구술자는 인천조병창이 개창한 1941년 이후 동원된 사람들이다.

해야 했다.

조병창 개창 직후인 1941년에 들어간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은 국민학교 졸업 후 서울에 올라가 황금정에 있는 한약방에서 약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인천조병창에서 사진찍는 기사였던 온양 사람을 만났는데, 조병창에서 사람을 모집한다고 소개했다. 그 말을 듣고 김우식은 모집에 응했다. 돈을 벌고 싶어서였다. 그 때 그의 나이가 만 열여섯이었다. 원서에 사진을 붙이고 청양의 사양국민학교를 졸업했다는 내용을 쓰고 나니 더 이상 쓸 것이 없었다. 소개한 사람을 통해 원서를 접수했는데, 면접은 없었고 신체검사도 별 것 없었다. 아마도 응모하는 사람이 적었던 듯했다.

왕명근(1927년생, 전북 익산)은 국민학교 졸업 후 서울에 올라가 전전하다 경성부 청 식당에서 일하였다.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다 나르고 심부름을 하면서 고되게 지내던 중 부평에 살던 동갑내기 조카가 조병창에 취직할 것을 권했다. 식당에서 고생하는 것 보다는 공장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거기 가서 기술도 배우고 먹는 문제도 해결하고자 그의 알선으로 함께 조병창으로 향하였다. 조병창에 도착하자 간단하게 신체검사를 하고는 바로 일을 시작했다.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의 경우 국민학교 졸업 후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청년훈련소에 다니고 있었다. 동네 주재소에는 일본인 주임과 조선인 순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꾸 찾아와서 지원병을 가라고 하였다. 징병은 만 20세가 되어야 했지만 지원병은 나이에 상관이 없었고 전쟁 통에 군인이 부족하니 반 강제로 마구 보내려고 했다. 이미 25.6세에서 30세 사이에 있는 징병 초과 연령자들을 지원병으로 보내다가 병력이 부족하니 20세 이하도 마구 뽑아 보내려는 것이었다. 안간다고 버티지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다행히 면장을 맡고 있던 사촌형님이 군속에 가면 지원병을 가지 않아도 되니 차라리 군속을 가라고 말해주었다. 지원병에 가면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군속은 일만 하는 것이니 위험하지는 않다고 했다. 그 때는 주재소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만 했으므로 군속으로 가지 않으면 어차피 지원병으로 가야할 처지니 도리가 없었다.

군속을 가려면 인천에 있는 육군조병창이나 수원에 있는 비행기회사에 가면 되었다. 그래서 조병창에 지원을 했다. 그 때는 사람이 부족했으므로 지원하기만 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없었다. 신체 결함만 없으면 모두 합격이었다. 동네에서 4명이 함께 갔는데, 그 중 나이가 한 살 적은 사람은 기능자양성소로 들어가서 1년간 교육을 받고 공장으로 옮겼다. 기능자양성소 출신 군속은 일반 군속보다는 대우가 좀 나았던 것 같다. 최덕원 일행은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장항선을 타고 천안을 거쳐 갔다. 그 당시 기차는 석탄기차로서 화통이 있었다. 주포역에서 출발해 광천역에서 물과 석탄을 보충하느라 일곱시간 만에 경성에 도착했다. 거기서 다시 인천으로 향해서 조병창까지 가니 거의 하루가 걸렸다.

최덕원 일행은 조병창에 들어가기 전 간단한 시험을 보았다. ‘군인5개조’를 외우는 것이었다. 군인5개조의 첫 번째는 ‘군인은 충성을 하는 것이 본분이다’라는 내용으로, 국민학교 졸업 후부터 다닌 청년훈련소에서 이미 익힌 쉬운 것이었다. 일곱 여덟장의

내용을 다 외운 그에게 5개조를 외우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신체검사도 있었지만, 입 벌려봐라, 눈 이렇게 해봐라 하는 간단한 것이었다. 당연히 4명 다 합격을 했다. 그러나 4명은 각자 숙소가 따로따로 흩어져 배치되었다.

이러한 모집의 형식을 통했던 사람들에 비해 ‘국민징용령’이 시행되기 시작한 1944년 8월부터는 징용 영장을 받고 동원되었다.

1945년 1월 동원된 김학수(1929년생, 경기 여주)는 아버지 앞으로 징용 영장이 나오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동원되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할머니와 6남매가 있는 가족이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영장이 나와도 다른 사람이 대신 가는 경우도 많았다. 사람의 숫자만 채우면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학수의 경우 네 살 위인 그의 형이 징병되어 일본에 가 있는 상태였다. 군직원의 인솔에 따라 출발한 김학수는 여주에서 수원으로, 또 부평으로 가서 조병창에 도착하였다.

유만종(1927년생, 경기 김포)은 지금은 한전으로 바뀐 경성전기주식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경성전기 역시 징용을 안가는 회사였다. 그런데 회사에서 실수를 했는지 사령장이 나오지 않아 입사 3개월 만에 면 서기가 영장을 가지고 왔다. 1945년 3월, 무기를 만드는 무서운 곳이라는 소문만 들었던 조병창으로 가게 되었다. 김포 면에서 누구와 함께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걸포리에서는 혼자 안내자와 함께 부평 백마장까지 40리 길을 걸어갔다.

한편 오상기(1927년생, 서울 종로)는 조선총독부 운수부 직원으로 용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출근한지 3개월쯤 되었을 무렵 성격이 고약한 일본인 수위와 다투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바로 징용영장이 나왔다. 1945년 6월 하얀 종이에 언제 어디로 집합하라고 적혀 있었다. 총독부 운수부는 현원징용업체로서,⁹⁾ 그 직원들은 현장 징용 상태이므로 징용을 가지 않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일본인 과장에게 찾아가 징용을 취소시켜 달라고 하였지만, 과장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일본사람하고 싸웠으니 미운털이 박힌 것이다. 징용을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종로 일대에서 징용된 사람들이 수송국민학교인지 덕수국민학교인지 운동장에 모여 있었다. 그 즈음에는 국외로 징용되어 가는 사람도 많았는데 오상기 일행은 국외로 갈 수가 없었다. 폭격이 심해서 배가 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은 망해가는 판으로 폭격을 당해 뜰 배도 없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부평으로 사람들을 몰았던 것이다.

한편 구술 대상자 중에는 학생들의 비중이 적지 않다. 12명 중 6명이 학생으로서, 조병창에 동원된 인원 중 어린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¹⁰⁾

9) 현원징용이란 1944년 군수회사법에 의해 군수회사로 지정된 공장이나 작업장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자와 직원 등이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징용되는 경우를 이른다.

10) 본 구술작업의 대상자들은 모두 80대 후반~90대의 고령으로서, 현실적인 판단에서 애초 구술 대상자의 상한선을 1925년생으로 정하였으므로, 강제동원의 중심 대상자였던 일반공보다는 학생으로서 동원된 사람들이 구술의 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학생들의 비중이 크다는 특징과 더불어 한계를 지닌다.

그 중 1명(윤용관)은 국민학교 재학 중에, 3명(김상현, 변명식, 장화두)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2명(전진수, 지영례)은 중학교 재학 중에 동원되었다.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한의원 직원, 경성부청 식당 직원, 농민, 경성전기 직원, 조선총독부 운수부 직원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을 동원 당시의 나이별로 살펴보면, 만 13세 1명(지영례), 만 14세 2명(윤용관, 왕명근), 만 15세 4명(장화두, 변명식, 최덕원, 전진수), 만 16세 3명(김우식, 김상현, 김학수), 만 17세 2명(유만종, 오상기)으로 구성되었다. 조병창으로 동원된 과정을 개인별로 살펴본다.

국민학교 5학년 재학 중이던 윤용관(1929년생, 충남 공주)이 동원되던 당시 그의 나이는 만 열네살이었다. 1944년 어느 날, 학교에서 5학년 50~60명 가운데 공부 잘하는 학생 2명을 뽑아 다른 곳으로 공부시키려 보낸다고 하였다. 부반장이던 윤용관은 그보다 한 살 많은 반장과 함께 차출되었다. 공주군청으로 가니 것처럼 어린 학생 여남은 명이 모여 있었다. 공주에서 누군가의 인솔로 차를 타고 대전역까지 가고,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영등포까지 가고, 또 기차를 갈아타고 부평 백마장으로 갔다. 도착해서 보니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군속으로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변명식(1928년생, 경기 여주)은 6학년을 마치자 ‘영장’이 나왔다. 1944년 3월 말 졸업식을 하고 바로였다. 친구들은 졸업하면서 사방으로 다 흩어졌고, 변명식 혼자만 인천조병창으로 가게 되었다. 그는 지금까지도 교장선생님이 자신이 지각을 자주하는 것을 밉게 봐서 그리로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부평으로 인솔자가 데려다 주었다. 면직원인지 조병창 사람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하냥 뒤를 돌아보았다. 버스를 타고 여주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 내렸고, 다시 군 트럭을 타고 부평의 조병창으로 갔다.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는 지금은 구미시로 바뀐 칠곡군 인동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 4월 1일 바로 인천조병창 기능자양성소에 입소하였다. 동창 60명 중 장화두와 친구들 일행 4명은 조병창에 지원해 시험도 치르지 않고 입소해 기능자양성소 2기가 되었다. 같은 학교 1년 선배들 서너명이 먼저 기능자양성소 1기로 들어가 있었다. 학교에서 ‘인천조병창에 갈 사람 지원해라, 3년동안 공부를 가르쳐 주니까 집이 가난해 대구의 중학교에 못가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공부해라’라고 말했다. 두고두고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은 국민학교 고등과를 졸업하자마자 동원되었다. 고등과를 마치고 진학을 하는 대신 그는 친구들과 함께 8명이 학교에서 안내하는 대로 인천조병창 기능자양성소에 지원했다.¹¹⁾ 그곳에 가면 공부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군인 장교들이 시험관으로 학교까지 왔다. 여덟명이 시험을 보았는데 전원 합격하였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듯이 1944년 4월 1일 입학식 날짜에 맞추어 춘천에서 인천조병창이 있는 부평으로 갔다. 어머니, 아버지가 입학식처럼 따라 가

11) 김상현이 보기에, 그 시절에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꾸 징용을 보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조병창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 군속이 되어 징용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김상현은 국외로의 동원을 피하려는 것을 징용을 피하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셨다. 춘천에서 기차로 서울로 가고 서울에서 다시 인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부평에서 내렸다.

이에 비해 지금의 중학교 과정인 고등여학교에 다니던 지영례(1928년생, 인천 부평)는 2학년 2학기가 시작되면서 1942년 만 열세살에 학교를 그만 두어야 했다.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간다고 동네에서 죄다 난리가 났기 때문이다. 면에서 와서 집집마다 여자 아이들의 생일과 이름을 적어갔다. 그 명단 중에서 뽑히면 돈벌이를 시켜준다고 했지만, 소문에는 '정신대'로 가야한다고 했다. 정신대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리고 겁이 났다.¹²⁾ 지영례의 아버지가 구장이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다행히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정신대 가는 걸 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에 들어가야 했다. 결국 지영례가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을 때, 같은 반 친구들 30여 명 중 10여 명도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 한꺼번에 학교를 그만 두었다. 하지만 한반에 두세 명씩 있던 일본 친구들은 학교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를 그만 둔 친구들은 인천조병창으로 들어갔다. 지영례도 조병창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하던 큰오라버니의 친구에게 지원서를 주고 소개를 부탁했다. 오라버니 친구가 언젠가 손을 다쳐 의무과에 갔는데 그곳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고, 조병창 의무과에서도 여자들을 뽑는다고 했다면서 소개해 주었다. 지영례는 동갑 친구와 둘이서 조병창에 있는 병원 서무과에 들어갔다. 선반공장¹³⁾에서 기름칠 하는 여자 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빠 친구가 그건 힘들다고 서무과로 알아봐 준 덕이었다. 서무과에 들어갈 때에는 시험도 면접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대개 그렇게 알음알음으로 소개 받아 오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중학생이던 전진수(1930년생, 경기 고양)는 학생근로보국대로 동원되었다. 1945년 7월 어느 날 경성역 앞으로 2학년 학생은 다 모이라는 선생님의 지시가 있었다. 2학년은 갑조와 을조 두 반으로 구성된 120명이었다. 그러한 지시에는 누구건 감히 못 간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선배인 3학년과 4학년생들은 이미 김포비행장과 평택비행장 건설 현장에 동원되어 있었다. 그해 초여름 보내기 하러 갔을 때처럼 학생들은 교복을 입은 채 각자 자신의 침구를 가지고 정해진 날짜에 경성역에 집결하였고, 담임선생님 인솔로 부평역까지 갔다.

부평으로 가기 전에 선생님에게 언제까지 일한다, 얼마나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들은 적이 없다. 기차를 타고 부평역에 내려 역 근처에 있는 미쓰비시철공소(미쓰비시제강-필자 주) 직원들의 막사로 갔다. 도착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는 바로 학생들의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같은 날 청주상업학교 4학년과 충주농업학교의 4학년 상급생들도 입소하였으므로 세 학교 학생들이 모여 한꺼번에 열병식을 하였다. 전진수는 열병 도중에 더위에 지쳐 일사병으로 쓰러졌는데, 마침 그들이 배치된 곳에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군인들 의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조선군사령

12) 여기에서 정신대는 내용상 '일본군위안부'를 의미한다. 정신대는 노동력으로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일본군위안부'를 정신대로 불러왔다.

13) 선반(旋盤)공장의 일본식 발음.

부 예하 22부대 현역 군인들을 도와 작업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세 학교 학생들은 혼성으로 편성되어 여러 개의 작업장으로 분산 배정되었다.

2) 인천조병창과 기능자양성소의 구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들이 도착한 인천조병창은 조선에서 유일하게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주변의 미쓰비시제강을 비롯한 여러 공장과 인천의 조선기계제작소 등을 하청공장으로 활용하면서 대량의 무기를 생산하여 조선의 병참기지화 정책을 실현하던 핵심 기지였다. 인천조병창은 1939년 부평에 부지를 잡아 공사를 시작한 이래 공장과 기능자양성소를 준공하여 1941년 5월 5일 개창식을 가졌다. 인천조병창에는 부평의 제1제조소와 평양의 제2제조소가 있었고, 제1제조소 아래에는 3개의 공장이 있어, 각 공장마다 소총과 탄약, 총검, 군도 등 무기를 생산하는 공정을 순차로 나누어 작업하였다. 부대시설로 기숙사, 병원, 매점 등이 있었고 2킬로미터 정도 거리를 둔 곳에 기능자양성소를 설치해 운영하였다.¹⁴⁾

부평의 조병창 주변에서 살고 있던 지영례에 의하면, 1939년부터 백마장에서 엄청난 규모로 공사를 시작하더니 1941년에 큰 공장이 들어섰다. 인천조병창이었다. 조병창 설립 초기에 동원된 김우식에 의하면, 그가 처음 조병창에 갔을 때는 조병창 건물 조금 지어진 것 말고는 주변이 다 벌판이었다. 주변의 큰 건물은 경인선의 부평역 뿐이었다. 조병창에서 주안 방향으로 백마장이라고 조선 사람만 사는 마을까지 가는 길만 나 있을 뿐 주변에는 온통 논과 밭만 있었다. 길은 붉은 황토길로 비가 오면 땅이 질퍽질퍽하였다. 백마정에서 고개를 넘으면 주안염전이 있었다. 부평역 조금 지나면 철길 옆에 조병창보다 먼저 들어선 삼릉공장(三陵製鋼 미쓰비시제강 - 필자 주)이 있었다. 철길 이쪽과 저쪽으로 조병창과 삼릉공장만 있고 사람들이 사는 집은 몇 채 되지 않았다.¹⁵⁾

소화고녀에 다니다 ‘정신대’ 동원을 피해 학교를 그만둔 지영례와 친구들은 대부분 조병창으로 들어갔다. 지영례는 백마장 한쪽 끝에 살면서 날마다 병원까지 걸어서 출근했다. 조병창까지는 논길, 밭길을 지나야 했다. 더러는 목화도 심겨 있었다. 조병창 병원으로 출근하려면 산곡동 쪽으로 난 뒷문으로 들어가 넓은 조병창을 가로질러 가야 했으므로 같은 백마장에 있어도 정문 쪽에 있는 병원까지는 40분이 넘게 걸렸다.¹⁶⁾

조병창은 매우 넓었다. 들판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 삼릉공장과는 비교도 안되

14) 인천조병창의 제1제조소와 제2제조소, 민간 하청공장에서 생산하던 병기의 종류와 수량은, 매달 소총 4천정, 총검 2만개, 소총탄환 70만발, 포탄 3만발, 군도 2만개, 차량 2백량에 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잠수정 제작에 필요한 기계를 만들어 당시 육군의 지시로 비밀리에 잠수정을 제작하고 있던 인천의 조선기계제작소에 공급하기도 하였다.(宮田節子 編·解説,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117쪽; 이상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 25, 2016.8, 172~173쪽)

15)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16) 지영례(1928년생, 인천 부평)

게 컸다. 조병창의 드넓은 터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주변과 차단되어 있었다. 조병창의 주소는 백마정 1번지였고, 정문에는 인천육군조병창이라고 써있던 것으로 기억된다. 조병창 정문은 부평역 방향으로 나 있었다. 철문으로 된 정문 양 옆으로는 기둥이 있었고, 정문 주변에서 군인들 몇 명이 지키고 있었다. 정문 밖에는 큰 노깁¹⁷⁾이 있었다. 벽돌로 된 담장의 동쪽과 북쪽에는 나무로 된 샛문이 있었다. 샛문 옆에는 초소가 있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 조병창 안에 있는 공장 건물들은 규모가 매우 컸다. 큰 공장이 땃개쯤 있었던 듯하다. 원공장 건물은 처음부터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건물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여기저기 다니며 구경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정해진 장소에만 있도록 엄격히 단속을 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샛문에서 정문 방향으로 가로질러 출근을 하려면 공장들을 피해 옆으로 난 골목으로 돌아서 가야 했다.¹⁸⁾

조병창 안에는 정문과 여기저기 군데군데 일장기가 걸려 있었다. 그 넓은 조병창 안에서 창장이나 공장장 같은 사람들은 주로 말을 타고 다녔고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였다. 부평역에서 철로가 휘어져 조병창 안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기차가 조병창 안의 정거장까지 들어왔다. 기차가 재료들을 실어오고 만든 제품을 다 실어 갔으므로 물건을 만들면 그쪽으로 이동시켰다. 해방 후 귀가를 할 때도 그 정거장에서 기차를 이용했다.¹⁹⁾ 기차 하차장에는 중국, 만주 지역에서 쓰던 커다란 화폐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다. 조병창에는 높은 굴뚝도 있었다.²⁰⁾

하루 300정의 엄청난 분량의 99식 소총을 생산하고 수만명을 수용한 방대한 조직이었던 인천조병창의 제1제조소는 1, 2, 3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소총 한자루를 만들려면 80여가지의 부속이 필요했는데, 공장별로 1공장은 주물공장, 2공장은 선반공장, 3공장은 조립공장의 역할을 했다. 1공장에서 주물을 만들어내면 2공장에서 그것을 깎아 부속으로 만들었고, 3공장에서는 그 부속을 조립하여 무기를 완성하였다.²¹⁾ 공장들은 순서대로 있었는데, 1, 2공장은 가까운 곳에 있었고, 3공장은 조금 떨어져 있었다.²²⁾

제1공장의 사무직에 배치되었던 김상현에 의하면, 1공장은 대규모 강판을 땅땅 찍어내던 板金공장, 시뵈겅게 쇠를 달구어 각종 부속의 모형을 찍어내던 鍛造(단조)공장,²³⁾ 쇠를 달구었다가 깎기 쉽게 잘 물러지도록 숯불에 오래 담갔다 식히는 調質(조시쓰)공장,²⁴⁾ 나무가 뒤틀리지 않도록 푹 찌서 숨을 완전히 죽이는 木造공장 등으로

17) 샘을 만들 때나 수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가운데가 빈 원형의 콘크리트 통.

18)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윤용관(1929년생, 충남 공주), 지영례(1928년생, 인천 부평)

19) 유만중(1927년생, 경기 김포), 왕명근(1927년생, 전북 익산),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20)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지영례(1928년생, 인천 부평)

21)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22)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이에 비해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은 1공장은 조금 떨어져 있었고, 2, 3공장은 가까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23) 단조란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24) 조질은 담금질 후 약 400℃ 이상의 온도에서 재차 뜨임질을 하는 철강의 열처리 작업이다.

구성되어 있었다.

제2공장은 旋盤(센방)공장으로,²⁵⁾ 선반 수백개가 뿔뿔하니 들어 차 있었다. 2공장에 배치되었던 김우식은 2공장이 가장 크고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가장 많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무척 커다란 건물들이 주욱 연결되어 있었고, 건물 가운데 쇠기둥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쇠기둥 위에는 돌아가면서 피땀줄을 길게 연결해 놓았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기계에 전기를 넣어 자석도 기능하게 하고 피대도 돌아가게 하여 작업을 했다. 공장 안에서는 각 부서마다 정해진 부속만 만들었다. 총열을 만드는 부서, 탄창을 만드는 부서 등 다양한 부서가 있었고, 각 분야별로 여러 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한반, 저쪽에서 한반씩 여러 반이 따로따로 근무를 했다. 총열을 당기는 사람들도 있고, 총열에 구멍 뚫는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선반을 돌리면서 쇠가 깎여 나오는 것을 다루느라 손이 ‘기리코’²⁶⁾에 찢려 엉망이 되는 사람, 깎은 부속을 검사하는 사람도 있었다.²⁷⁾

옆으로는 제3공장인 組立(구미다테)공장이 있었다. 3공장에서는 2공장에서 나온 부속들을 가져가서 조립하여 총을 완성하고 칼을 만들어냈다. 2공장에 비하면 공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았고 시설도 단순하였다.²⁸⁾

1,2,3공장을 거쳐 완성된 총과 칼들은 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다. 검사실은 지하병커에 있었다. 지하병커는 한쪽에서 총을 쏘아 성능을 시험해 볼 만한 정도로 길게 되어 있었고 불빛도 밝았다. 한쪽에는 책상이 있어서 총을 올려놓고 있었다. 조병창 초반에는 총을 만든 후 일일이 전부 쏘면서 검사를 했다. 그러나 1945년 무렵에는 한꺼번에 여러개씩 저절로 발사되도록 하여 검사를 했다. ‘일본이 망해갈 무렵에는 생산이고 뭐고 엉망이 되었고, 총도 총알이 나가기만 하면 합격, ‘오케이’였다.’는 것이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이다.²⁹⁾

지하병커 외에도 조병창 안에는 땅굴이 여러 개 있었다. 유만종은 일할 때 일행들과 함께 긴 굴에 들어간 적이 있다. 굴 내부는 밝게 불이 켜져 있었고, 방만한 넓이로 상당히 길게 만들어져 있었다. 이 지하시설은 총과 칼을 만들면 그곳에 보관하여 창고처럼 사용하였다. 또 수시로 공습 대피 훈련을 하느라 종을 치면 공장 사람들이 모터를 모두 끄고 다 나가서 지하로 들어갔다.³⁰⁾

이와 함께 조병창에는 완성된 무기를 쌓아놓는 창고도 여러개 있었으며, 기숙사도 만들어졌다. 그런가 하면 인천조병창에는 처음에는 총탄 만드는 시설이 없었는데, 1945년 총탄, 탄약을 만드는 공장 시설이 들어섰다. 일본에 공습이 심해서 일본 어디선가 철수해 옮겨온 시설이었다. 옮긴지 얼마 있다가 전쟁이 끝났다.³¹⁾

한편 조병창에서는 기능자양성소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³²⁾ 기능자양성소

25) 선반이란 금속, 나무, 돌 따위를 회전시켜서 갈거나 파내거나 도려내는 데 쓰는 공작 기계를 말한다.

26) 切粉. 금속을 갈아낸 부스러기를 의미하는 일본어.

27) 변명식(1928년생, 경기 여주),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28)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29) 윤용관(1929년생, 충남 공주),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30) 유만종(1927년생, 경기 김포), 왕명근(1927년생, 전북 익산)

31) 지영례(1928년생, 인천 부평),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에는 국민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제1기 양성공은 1942년 4월 1일에 입학식을 하였다. 기능자양성소는 조병창과는 별도로 2킬로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산곡동 산 밑에 설치되어 있었다. 양성소에는 2층으로 된 기숙사 건물 세 동이 있어 다 같이 합숙하도록 되어 있었다. 기숙사에서는 넓은 교실 같은 곳에서 반별로 한 줄로 죽 누워서 잤다. 기숙사 옆으로는 목욕탕과 식당이 붙어 있었다. 반대편 방향 아래로 운동장이 있었고, 운동장을 지나가면 수업을 하는 ‘학교’ 건물 세 동이 있었다.³³⁾

기능자양성소는 약간 산쪽으로 있었다. 뒤로는 전부 산이었고 산으로 길이 이어졌다. 뒤쪽에는 평평하게 깎은 야트막한 산이 있었고, 그 산을 넘으면 주안염전이 나왔다. 그 산위에는 대공포 모양으로 나무 전봇대를 세워 위장해 놓았다. 주말이면 양성소 아이들이 산에 올라가 놀면서 그 전봇대를 이리 저리 끌고 다녔다. 그러면 선생들이 와서 장난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미군들이 사진을 찍으면 비행기를 공격할 대공포처럼 보이도록 한 것인데 자리를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³⁴⁾ 양성소 앞으로는 학교 건물과 운동장이 있었다. 아침에 기상나팔이 울리면 다 같이 아래쪽의 연병장으로 뛰어 나가 운동을 하고 조회를 했다. 기능자양성소는 당초 의도한 기능훈련의 역할은 못하고 숙식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기능자양성소에서 조병창으로 가는 길 중간에는 안으로 조금 들어가서 형무소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없어졌다. 숲속에 있었는지 몰라도 형무소 시설은 별로 잘 안보였지만 죄수들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좁은 길이 있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죄수들을 사역시키는 ‘렌카’공장 곧 벽돌공장이 있었다. 공장에는 높은 굴뚝이 있었고, 가끔씩 벽돌을 굽느라 연기가 났다. 그 일대에는 그 공장만 있었다. 백마장 주변은 전부 황토길이었었는데, 황토가 참 좋았다. 거기서 죄수들이 황토로 벽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숫자가 많았다. 군데군데 감시원들이 있었고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다. 그들이 만든 벽돌은 조병창이나 ‘한인촌’을 짓는 데 쓰는 것은 아니었다. 언젠가 한낮에 기능자양성소까지 휘익- 하고 호각 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작업 도중 죄수 한명이 도망쳐서 그를 잡느라고 소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은 친구들과 죄수들이 벽돌색 옷을 입고 호박을 심는 등 농사 짓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하였다. 죄수들이 이동할 때는 끈으로 한꾸러미로 붙들어 매고 일할 때는 풀어 주었다.³⁵⁾

거대한 규모로 전시하의 무기 생산이라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던 조병창에는 당연히 병원도 존재하였다. 의무과라 부르던 조병창의 병원은 개천 옆에 있는 흰색의 2층

32) 기능자양성소는 1939년에 제정된 공장사업장기능자양성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 중에서, 연령 16세 이상의 남자 노동자를 상시 200명 이상 사용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는 기능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설치되었다. 조병창은 지정 사업 중 하나인 ‘銃砲 彈丸 水雷(어뢰) 및 兵器類 製造業’ 공장에 해당하였다.(大同書院編輯部 編, 『勞務統制法規總攬』, 大同書院, 1942, 371~376쪽 참조)

33)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장화두는 1943년에 입소하였는데 자신이 기능자양성소 2기라고 구술하였다.

34)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35)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건물 한 채를 따로 쓰고 있었다. 복도를 따라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치과가 구분되어 과마다 칸칸이 공간을 따로 쓰고 있었고 입원실도 있었다. 진료실에는 진료 과에 따라 의사들이 들어가 있었다. 병원이 커서 의사가 7, 8명 있었고 간호사들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조병창은 일본 육군 관할로 지휘관은 전부 일본 군인이 맡았다. 공장마다 공장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부서마다 모두 기술자와 감독, 반장, 부반장 같은 간부가 있었다. 이들은 거의 다 일본사람이었고, 그중에서도 고위직은 일본 군인들이었다. 조병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군복을 입었는데, 간부가 되면 별을 달았다. 영관급은 노란 별, 그 아래 군인은 빨간 별, 공원급은 흰 별을 달았다.³⁶⁾

조병창 장장은 일본인 중장 출신으로, 일본 ‘천황’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했다. 부평의 제1제조소장은 육군 대좌가 맡고 있었다. 공장장 중 1공장장은 오-시마헤이토쿠(大島秉徳)라는 조선인이었다. 그는 6.25전쟁 때 한국군 참모총장을 지낸 바 있는 채병덕이다.³⁷⁾ 다른 공장장은 대위가 맡았지만 1공장은 소좌인 채병덕이 공장장을 맡고 있었다. 조병창 안에서는 그가 조선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많은 소문이 떠돌았다. ‘채병덕은 제1제조소장과 일본사관학교 동기인데 소장은 일본사람이라 빨리 승진하고 채병덕은 조선사람이라 늦어져서 아직 소좌다.’ ‘일본인 장교들이 회의를 할 때 채병덕을 부르지 않아서 채병덕이 회의 도중 칼을 가지고 책상을 치면서 나는 군인이 아니냐?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싸웠다’는 등의 말이었다. 이외에도, ‘채병덕은 조병창 안에서 말을 타고 다녔다. 군복에 군모를 쓰고 무릎까지 오는 번쩍번쩍 빛나는 장화를 신고 빨간 말을 타고 뚜벅 뚜벅 지나가는 모습이 참 늙름해 보였다.’는 회고는 조병창에 동원된 사람들 내에서 채병덕이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음을 보여준다.

채병덕이 근무하던 1공장의 사무실 ‘한 귀퉁이에서’ 근무하면서 채병덕을 자주 지켜보았던 김상현에 의하면 ‘일본 육군 소령이었던 그는 화가 날 때면 ‘내가 원대복귀하면 ‘카미사마(神様)’인데, 병기(兵器)라서 이런 데 와서 썩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체격이 어마어마했고 동창회에서 만들어준 손바닥처럼 넓고 긴 지휘도를 차고 철커덕 철커덕 소리를 내면서 다녔다.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유명하였다. ‘조선 사람으로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했다.’고 기억했다.

한편 기능자양성소에는 담임선생님이 따로 있었는데 모두 군인이었다. 양성소장은 일본의 유년학교(幼年學校) 출신의 일본군인 소좌였다. 머리가 희었고 조그만 그는 50대 후반이었는데 당시 10대의 양성공들 사이에서는 다른 일본인들과는 달리 인자해 보였다는 평이 있었다.³⁸⁾

36)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37) 필자는 이전 논문에서 채병덕을 인천조병창 제1제조소의 3공장장으로 서술한 바 있으나 1공장장이었던 것으로 교정하고자 한다.(이상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 동원」, 『인천학연구』 25, 2016.8, 174·178쪽)

38)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3. 인천조병창의 노무자 구성과 노동실태

1) 노무자 구성과 노동현장에서의 역할

구술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강제동원이 남녀노소 모든 층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패전 직후 1945년 8월 15일 현재 각 조병창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의 숫자를 조병창별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해 두었다.³⁹⁾ 그러나 인천조병창은 그 조사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따라서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종사하고 있었는지 그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

당시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적게는 3천명, 많게는 수만명으로 기억하고 있어 그 편차가 매우 크다. 나이 어린 조선사람의 입장에서 ‘알기도 어려웠고 알려고 해도 안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⁴⁰⁾ 인천조병창의 구성원은 최소 1만명의 대규모였으며,⁴¹⁾ 장화두의 구술을 통해 기능자양성소는 인원이 매 학년 300명씩 3개 학년에 총 900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조병창 인근에 살면서 날마다 병원 건물로 출근을 하던 지영례는 아침에 조병창으로 들어가 공장 건물들을 여러 채 지나자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조병창 밖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숙사에서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출퇴근하는 사람 중 사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멀리서 통근을 했다. 서울에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인천에서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일반공원들은 주로 조선인으로, 나이 많은 남자도 있었고,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나이 어린 남학생도 많이 있었으며, 많지는 않았지만 젊은 여자들도 다니고 있었다. 장화두가 일한 2공장에서도 인천에서 온 열일곱, 열여덟 살 또래의 여자들이 여기저기 섞여서 같이 일했으며,⁴²⁾ 지영례도 다수의 여학생들이 조병창에 들어가 무기를 손질하거나 서무를 보고 있었다고 구술하였다.

일본인 노무자도 적지 않았다는 구술이 있다. 1공장 사무실에 있었던 김상현에 의하면, 대부분의 간부와 반장은 일본사람이 맡고 있었지만, 일본사람 중에도 사무 보는 사람, 기술자만이 아니라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는 ‘기름칠이나 하고 부족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못나 보였다.’고 표현하였다. 기능자양성소에도 또래의 일본 아이들이 있었고, 또 일본인 특수부대 군인들도 와 있었다. 어디선가 출퇴근을 하면서 군가를 부르는데, 나이가 많이 적었던지 그 모습이 꼭 어린애들 같았다.⁴³⁾

39) 日本兵器工業會, 『終戰直後の造兵廠現況綴』, 1945.

40)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41) 이상익,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 25, 2016.8, 178~180쪽.

42) 이에 비해 같은 2공장에서 근무한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은 여성들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만큼 2공장이 크고 서로 분리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같은 공간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단절되어 있었던 면을 짐작할 수 있다.

43) 기능자양성소에서 숙식하면서 1공장에서 일했던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은 일본사람들이 1/3 정도는 되어 보였다고 구술하여, 적지 않은 숫자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인천조병창으로 동원된 사람들은 기능자양성소를 비롯하여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의 곳곳에 분산 배치되어 무기의 생산 공정을 담당하였고, 기차에서 원자재를 옮기는 하역작업을 하거나 터널을 파는 토목공사에 배치거나 조병창 소속 병원에서 서무를 보는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되어 있었다.

조병창에 동원된 조선인은 대부분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 공장 안에서도 일에 차별이 있어서, 간부들을 알면 좀 편한 데서 일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장에 가서 기름칠을 해야 했다.

1공장의 작업반에 있었던 김상현은 1공장에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쇠를 달구어 찍어낸 각종 부속의 모형을 2공장으로 배달하는 업무를 맡아 보았다. 공장에서는 학교에서 임원을 맡았거나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을 선정해 사무를 보게 했다. 덕분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병창 내부를 좀 더 돌아다니면서 살펴볼 수 있었고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조병창 내에서는 2공장의 규모가 가장 컸다. 군속이 공장 안에 나란히 여러 줄로 줄지어 서서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있었다.⁴⁴⁾ 김우식은 2공장에서 99식 소총의 방아쇠를 깎았다. 전기 자석판에 주물공장에서 나온 방아쇠 만드는 쇠를 딱 붙여놓고 그라인더라고 하는 연마기로 한쪽 면을 판판하게 깎고, 그것을 뒤집어서 다른 면을 다시 깎는 작업이 그가 맡은 일이었다. 앞면 두차례, 뒷면 두차례, 총 네 번의 동작을 통해 두께가 딱 맞도록 재가면서 깎아야 했다. 전기를 넣어 딱 붙게 해서 정밀하게 해야만 방아쇠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되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잘못해서 ‘기스’라도 나면 큰일이었으므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했다. 그런 후에 그것을 빼서 옆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은 쇠의 옆면을 깎았다. 불량품이 나와 검사공에게 걸리기라도 하면 큰일이 났다. 2공장 안에도 너댓명의 검사공이 있어 그들이 검사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검사공들도 잘못 만든 물건이 조립하는 데로 가서 문제가 되면 안되었으므로 검사를 철저히 했는데, 불합격으로 걸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변명식은 2공장에서 검사를 담당했다. 조병창에 들어가자 감독관이 도장을 주면서 탄창에 도장찍는 임무만 하라고 했다. 부품을 만들면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고 탄창에 쇠도장을 찍어 주는 일이었다. 로-라가 돌면서 완성된 부품이 변명식의 작업대 가까이 밀려오면 ‘따그락 따그락’ 하고 소리가 났다. 그 중의 좋은 것만 챙겨서 도장을 찍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들어오면 무조건 합격이었고, 덮어놓고 도장을 찍었다. 탄창 위에다가 쇠로 된 도장을 올려놓고 망치로 딱 치면 문양이 찍혀 나왔다. 일본어 글자가 찍혀 나온 것 같다. 도장을 찍고 다시 엎어 놓으면 부품이 입구로 가서 툭 떨어지곤 했다. 변명식은 출근해서 점심먹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종일 쇠도장 찍는 일만 했다.

최덕원은 제2공장의 기술반에 배당되었다. 그는 99식 소총의 구멍 뚫는 일이 배당되었지만 기술반 소속이 되면서 현장 일은 하지 않았다. 기술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기계가 고장나거나 잘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시중을 들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편하

44)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게 일을 했다. 기술반에 필요한 잡일을 하는 것으로 일반 기능공의 일과는 다른 것이었다. 기술반의 일반 기능공들은 각자의 앞에 그날그날의 목표량을 그래프처럼 적어 놓았다. 일선에서 군인들이 죽자 사자 싸우는 것처럼 후방인 공장에서도 그런 정신으로 일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엇을 만들든 깎든 구부리든 모두 목표량을 정하고 주어진 그 일만 하였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합을 받고 혼이 났다.

2공장의 과장과 주임들은 다 일본사람이었다. 2공장에는 이미 장가를 간 사람들도 많았고 40~50대도 있었다. 학생들도 있었다. 지금은 고려대학교가 된 보성전문학교 학생들이 학생모자를 쓰고 왔다갔다 하였고, 서울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교대로 와서 일하는 것도 보았다. 학생들이 공부를 그만두고 다 그곳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다. 군속들은 제복이 따로 있었지만 학생들은 교복을 입은 채 일을 해서 그들의 교복과 모자는 온통 기름 천지였다. 그들도 똑같이 총 만드는 일을 했는데, 학생들은 아침에 나와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나갔다.⁴⁵⁾

그에 비해 군속과 양성소 학생들은 1주일 단위로 주야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었다. 일거리가 많아서 2교대로 공장이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12시간 일하고 12시간을 쉬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숙소인 일성료에서도 아침에 일을 나가면 저녁에 일한 사람들이 들어와 자곤 하였다. 그러므로 공장과 기숙사는 밤낮으로 쉴 틈이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그만큼 사람들은 혹사당하고 있었다. 사무직이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던 김상현은 자신과는 달리 기능직으로 일하던 춘천국민학교의 동기들을 가끔 찾아가보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문을 다 닫고 잠만 자고 있었다.⁴⁶⁾

국민학생이던 윤용관은 조병창에 도착하자마자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한동안 교육을 받고 또 몇 달간 실습을 한 후 지하병커로 들어갔다. 지하병커에 있는 검사계의 책임자는 계장이었고, 인원이 매우 많았는데 모두 남자들만 있었다. 검사실에서는 완성된 총과 칼을 시험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전쟁이 한창이고 무기가 부족했던 때라 불합격은 없었다. 형식적으로 검사를 할 뿐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해서 다 내보냈다.

칼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판단하는 게 그의 역할이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칼자루를 손에 쥐고 칼날이 잘 쏘는지 손으로 하나씩 살펴보아야 했다. 매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회전해 오는 칼자루를 만지면서 점검을 했다. 얼마나 되는지 세지는 못했지만 매우 많은 물량을 다루었다. 그도 남들처럼 완성되어 오기만 하면 다 합격을 주었다. 처음부터 훈련받을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중학교에 진학을 하려다가 공부를 시켜 준다고 하여 조병창으로 간 장화두 일행은, 시험을 쳐서 잘 본 사람들은 조병창의 견습공으로 바로 가서 좀 더 세밀한 기술이 필요한 일을 맡았고, 다른 사람들은 양성공으로 가서 1, 2, 3공장에서 배정된 일을 하였다.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각 공장으로 배치되고 난 후 그 공장 안의 여러 반장들이 모여

45)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46)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그들을 여기저기에 다시 배치하였다.

기능자양성소의 양성공은 3학년까지 있었다. 학생들은 3년씩 머물면서 기능을 익히고 일반공과는 다른 지위로 배치되었다. 무작위로 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공과는 달리 양성공들은 자신이 공부한 분야로 배정을 받았다. 양성공들은 팔에 커다란 흰별 군장을 달고 으스대고 다녔다. 1년을 개근하면 ‘야마가타’가 하나, 2년을 개근하면 두 개였는데, 두 개는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흰 테를 두른 모자를 쓰고 있었으므로 일반공들과는 차이가 나서 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다.⁴⁷⁾

기능자양성소는 전부 남자들이었다. 2층으로 된 세 동의 기숙사 건물에는 학년별로 300명씩이 배치되었다. 기숙사는 복도가 있고 한쪽으로 방이 칸칸이 나뉘어 있었다. 방마다 양성공들 10명씩 합숙을 하고 있었다. 한 살 차이 정도로 나이는 서로 비슷했지만 서울, 평양, 칠곡, 부산 등 고향은 다양했다.⁴⁸⁾

양성공들은 단체생활을 했기 때문에 규율이 엄격하여 군대생활과 마찬가지로였다. 공부를 시켜 준다고 했지만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군대처럼 생활을 하였다. 아침 5시에 기상해서 연병장을 몇바퀴 돌고 밥을 먹고 목욕을 하였다. 제2기였던 장화두의 경우 처음 6개월 정도는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다.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기계 실습도 했다. 수업하는 건물도 2층 세 동으로 되어 있었고, 학교 교실처럼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실습소에서는 줄을 가지고 실습도 했다. 이후 장화두는 2공장에 소속되어 소총의 방아쇠 만드는 일을 하였다. 방아쇠를 만들 때도 누구는 만드는 것만 하고, 누구는 구멍만 뚫고, 또 누구는 돌리는 것만 하였다. 하루에 못해도 200~300개는 만들었을 것이다.⁴⁹⁾

한편 국민학교 고등과를 졸업하고 진학을 대신하여 기능자양성소에 입소한 김상현에 의하면 ‘기능자양성소는 방대한 인천조병창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육군을 유지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에서 간부를 양성하는 것 같은 체계’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공부를 배울 줄 알았던 기능자양성소에서는 막상 도착해보니 ‘나라’가 망해가는 판이었으므로 공부는 둘째 문제였다. 그들은 바로 조병창 현장에 작업반으로 배치되었다. 기능자양성소에 양성공으로 들어갔지만 양성소는 학교의 기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양성공이 학생이 아니라 조병창 작업을 하기 위한 일반공과 같았다. 소속만 양성소일 뿐 숙소에 지나지 않는 양성소에 머물면서 바로 조병창으로 출근하여 일을 했다. 따라서 실제 공장에서는 일반공과 양성공이 한 데 어울려 있었는데, 양성공이 단순한 작업을 하는 데 비해 일반공은 더 숙련이 되어 있었으므로 좀 더 어려운 일을 하였다.⁵⁰⁾

한편 조병창 개창 직후에는 일반공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를 기능자양성소로 보냈다. 일반공으로 들어간 김우식은 조병창에 들어간 이후 3개월간 기능자양성소에 있었다. 양성공들에 비해 일반공들은 3개월의 단기간만 양성소에서 배우는 과정

47)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48)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49)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50)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을 거쳤다. 그는 양성소에서 쇠를 연마하는 기능만 계속 익혔는데, 이후 2공장의 연마하는 작업반으로 배정되었다. 양성소의 학생 중에도 일본인 학생이 있었다.⁵¹⁾

한편 지영례(1928년생, 인천 부평)가 근무한 병원 서무과는 건물 정면의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옆의 문이 있는 곳에 있었고, 서무과 옆으로는 진료실이 이어졌다. 병원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오전 7시면 집에서 나와 오후 7시면 귀가할 수 있었다. 병원의 서무과 직원은 스무명 내외로 여직원이 많았다. 동료들 중에는 일본인이 많았지만 조선인 친구들도 서너명 있었다. 병원의 조선사람 중에는 서무 보는 사람, 심부름 하는 사람, 간호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소화고녀를 졸업하고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온 일본인 여자들도 있었고, 근처의 사택 같은 곳에 살던 나이 많은 일본인 여자들도 조병창으로 일하러 왔다. 간호사와 의사는 대부분 일본사람이었다. 의사들은 병원에서는 하얀 가운을 입었지만 밖에 나갈 때는 국방색 옷을 입고 다녔다.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대부분 친절했다. 하지만 항상 간호사는 간호사끼리, 서무 보는 사람은 또 그들끼리, 끼리끼리 뭉쳐 지냈다.

병원에 오는 여학생들은 서무과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간호보조로 배치되어 간호사를 돕거나 간호사 역할을 대신하였다. 새로 들어간 서무과 직원들에게는 환자를 대하는 방법 등 간단한 기본교육을 시켜주었다. 이후 이들은 몇 달간 교대로 한 달에 1주일 정도, 두세명씩 짝지어서 조병창 근처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야 했다. 동네에 환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병원을 이용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지영례도 세 차례 정도 설문조사를 다녀왔다.

지영례는 집에서부터 유니폼을 입고 출근해서는 병원 입구 서무과에서 접수를 맡아 보았다. 환자들이 오면 종이로 된 진찰권에 이름을 쓰고 해당 과의 도장을 찍어준 후 그 과로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내과에 갈 사람이면 진찰권에 내과 도장을 찍고 이름을 써준 후 그리 가라고 하면 되었으므로, 고등여학교에 다녔던 지영례에게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았다.

조병창 안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김학수는 자신이 있는 곳을 남들이 ‘부평조병창’이라고 말해줘서 그런 줄 알았을 뿐 무기 만드는 것은 본적이 없다. 오로지 시키는 대로 배수로 공사만 했다. 굴착기가 없었던 그 때, 신작로 옆의 딱딱한 땅을 여남은 명이 모여서 전부 삽과 곡괭이로 파서 배수로를 만드는 작업은 힘들었다. 그렇게 나온 흙을 또 삽으로 차에 퍼 얹으면 차가 싹고 어딘가에 버리고 왔다. 조병창에 있는 내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 일만 했다.

유만종에게 배정된 일은 하역작업이었다. 작업에 관련된 교육 같은 건 없었다. 조병창 안까지 기차로 들여온 물건을 하차하는 일인데, 물건은 주로 장작과 동전이었다. 도로꼬에 장작을 가득 싣고 오면 그것을 내려놓았다. 조병창에서는 아마도 불을 많이 피웠던 것 같다. 또 한가지인 동전은 중국돈이었다. 중국돈은 구리로 되어 있었고 한국 돈보다 훨씬 커서 그걸 녹여 총알을 만드는 데 썼다. 포대에 담긴 중국돈은 상당히 무거웠다. 기차에서 하역한 물건은 어디로 나르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그곳까지

51)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날랐다. 웬만한 건 창고로 날랐고 보통 하역을 하면 밖에 노적을 하였다. 유만종 역시 조병창에 있는 내내 하역작업만 하였다.

징용영장을 받은 오상기는 조병창에서 굴파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일본의 건설회사 시미즈구미(清水組)로 동원되었다. 그와 함께 동원된 일행은 보충인원이 되었다. 도착하자마자 일일이 개인 경력을 물어보더니 동원된 사람 중 두 명을 뽑아서 따로 부르고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는 사무실에 앉아서 동원된 인원을 파악하고, 땅굴 파는 작업 진도를 체크해서 매일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 임무로 주어졌다.

시미즈구미에서는 굴파는 작업을 담당했다. 아침식사 후 오상기는 사무실로 일을 나가 다른 동료들은 굴 속으로 들어갔다. ‘미군이 자꾸 폭격을 하니까 굴을 파서 조병창을 옮긴다’고 하는 소문을 그곳에서 들었다. 매일 매일 각 굴마다 십장들이 와서 ‘5미터 팠다’, ‘3미터 팠다’고 보고하면 그 내용을 벽에 붙여놓은 방한지에 갱도별로 그래프로 그렸고, 매일매일 몇 명이 작업했는지를 일지에 별도로 기록했다. 기구도 없이 순전히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서 바퀴달린 ‘도로쿠’에 실어 레일로 운반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루 3미터, 5미터면 많이 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병창의 일을 했지만 정작 조병창에는 들어가보지 못했다. 조병창은 군사기밀이라고 해서 전혀 접근을 하지 못했다. 다만 주변에 굴을 파서 조병창에 있는 무기를 숨긴다고 알고 작업을 하였다.

한편 중학생으로 한 학년 전체가 동원된 전진수는 굴을 뚫는 일이 배당되었으므로 배당된 작업장인 굴로 가서 굴 뚫는 작업을 도왔다. 조병창에 갈 때는 학생복을 그대로 입고 갔으므로 일을 할 때도 각반을 매고 교복을 입은 채로 그대로 일을 했다. 이들의 작업 목표는 일본군의 최후 방어를 위해 인천 지역에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산을 양쪽에서 뚫어 관통시키는 작업이었다. 야산의 중턱에 굴을 여러 개 만들어 거기에 사람도 들어가고 물자도 넣어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착암기도 없이 군인들이 긴 정과 해머를 가지고 남포구멍을 뚫다. 파 들어가는 방향에 맞추어 긴 정을 바위에 대고 돌리면서 해머를 두드리면 바위가 조금씩 부스러졌다. 계속 치면 정이 열을 받아 견디지 못하므로 그곳에 조금씩 물을 부어가면서 했다. 바위에서 떨어지는 가루가 물에 젖어 콩죽 같이 되면 그것을 국자처럼 생긴 도구로 긁어내야 했다. 길면 길수록 계속 국자를 안에 넣어 가루를 밖으로 끌어내야 했다. 착암기를 사용하면 간단한 일이겠지만 그곳에서 착암기는 전혀 볼 수 없었고, 모든 일을 다 인력으로 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바위에 일정한 깊이의 구멍이 생기면 그곳에 TNT 폭약을 넣어서 폭발시켰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곳에서 나온 젖은 돌부스러기, 흙부스러기를 가마니에 싣고 띠를 연결해 둘이 앞뒤에서 메고 계속 젖어 날랐다.

군인들은 22부대 현역 군인들로 40대 정도의 나이가 든 사람들이었다. 당시는 일제의 패전 직전으로 젊은 사람들은 대개 남양군도 같은 전방으로 배치되었고, 후비역(後備役)이라고 기업체에서 임원으로 있던 나이든 사람들이 후방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학생들은 그들을 돕는 일을 했다.⁵²⁾

52) 전진수(1927년생, 경기 고양)

2) 동원 노무자의 일상과 노동환경

조병창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모양의 옷을 입었다. 군복처럼 생긴 작업복이었다. 모자는 ‘센토보’라고 부르는 전투모(戰鬪帽)였고, 신발은 농구화처럼 생긴 작업화였는데 그 위에 각반을 했다. 공장에 출근하면 입고 간 옷과 모자를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시작했다.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다 보면 옷에 온통 기름이 묻으므로 옷을 들고 다니면서 출근해서는 짙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시작하고, 퇴근할 때면 다시 입고 간 옷으로 갈아입고 갔다. 본인의 기름복은 각자 챙겨야 했다. 의무과에서 일한 지영례도 조병창에 들어가면서 짙은 작업복으로 된 새 유니폼을 사 입었다. 옷은 미리 만들어진 기성복이 있었다.⁵³⁾

그러나 배수로 공사를 하던 김학수는 작업복이 나오지 않았고, 들어갈 때 입고 간 옷차림 그대로 찢찢한 날을 지냈다. 조끼도 없는 저고리 차림이었다. 바람이 불 때면 저고리 자락이 휘 날려 살이 그냥 드러나곤 했다. 유만중 일행의 경우 조병창에 들어가자마자 입고 간 옷을 전부 벗게 했다. 그리고는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야 했다. 그 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아주 뜨거운 물이라 버티기 힘들었다. 몸에 있는 이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목욕하는 사이 옷은 찢서 나왔다. 뜨거운 증기에 소독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를 죽였다.⁵⁴⁾

본 구술 작업 과정에서 대부분의 구술자가 공통적으로 조병창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언급한 것은 배가 고팠다는 내용이다. 세 끼니를 챙겨 먹는 건 좋았지만 항상 배가 고팠다. 쌀에는 잡곡이 많이 섞여 있었고 반찬은 한두가지였지만 다들 배가 고프니까 먹어 두었다.⁵⁵⁾

집에서 다니거나 사택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오기도 했지만, 대개는 공장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공장으로 밥을 실은 트럭이 들어왔다. 트럭이 저만치 와도 벌써 밥 냄새가 났다. 기숙사 분대별로 양동이 같은 통이 두 개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2명의 식사당번을 정해서 한명은 밥통을, 한명은 반찬통을 들고 공장 식당으로 밥을 타러 갔다. 그곳에서는 샵으로 밥을 퍼주었다. 반찬은 국이든 찌지든 언제나 짭짤한 한가지였다. 당번 두명이 밥과 반찬을 주는 대로 갖고 오면 먼저 분대장 그릇에 밥과 반찬을 많이 푸고 나머지 사람 것을 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의 밥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지 지켜보느라 전부 눈이 벌개졌다. 모두 젊은 사람들로 배가 고팠으므로 다 굶어먹고 밥풀 하나 남기는 사람이 없었다. 조병창에서는 밥이 적어서 항상 배가 고팠다. 밥도 쌀은 조금만 넣고 보리와 콩 등을 섞은 잡곡밥이었다.⁵⁶⁾

그 당시에든 국경일이 있었다. 명치절이나 천장절, 지구절 같은 국경일에는 세끼항(赤飯)이라고 빨간 팥을 넣은 찰밥이 나왔다. 그날만큼은 밥도 많이 주고 반찬도 잘 줬다. 최덕원은 배가 너무 고파서 일요일이면 가끔 흑석동에 사는 누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53) 윤용관(1929년생, 충남 공주), 지영례(1928년생, 인천 부평),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54) 김학수(1927년생, 경기 여주), 유만중(1927년생, 경기 김포)

55) 유만중(1927년생, 경기 김포), 윤용관(1929년생, 충남 공주)

56)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지영례(1928년생, 인천 부평)

왔다. 기차를 타고 노량진에 내려 언덕을 넘어 한참을 걸어갔다. 누이가 동생 왔다고 양은술에 쌀만으로 밥을 해주면 그것을 술 채로 들고 다 먹었다.⁵⁷⁾

기능자양성소의 식당은 건물이 매우 넓고 깨끗했지만 밥은 형편없었다. 학생들이 많다 보니 큰 솥에 밥을 했는데, 밥을 풀 때면 그 솥을 한쪽으로 기울이고 삽으로 푸곤 했다. 밥의 양은 엄청났지만 식당에서 개인에게 배정되는 양은 항상 부족했다. 별로 사먹을 것은 없었지만 조금씩 돈이 나오면 떡 같은 걸 사먹는 데 썼다.⁵⁸⁾

나이 어린 양성공들에게는 먹을 것 좀 더 줬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한꺼번에 큰 강당에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했다. 아침에 기상하면 곧잘 목욕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갔다. 식사는 밥 한그릇에 국,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을 하고 당번이 되면 밥통의 밥을 식판에 떠주었는데, 당번이 되면 자기 밥을 조금이라도 더 담으려고 꼭꼭 눌러서 자기 차례에 놓곤 했다. 밥먹기 전 양성소장이 나와 두손 모아서 ‘잘 먹겠습니다’라고 하고 나면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다. 양성소장도 양성공들과 같이 앉아 먹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입에 넣고 손을 내린 채 눈을 감고 입에서 없어질 때까지 밥을 꼭꼭 씹었다. 한참 씹다가 다 삼키면 다시 눈을 뜨고 한입 넣고는 또 오래 오래 씹었다. 다 먹은 그릇은 물을 받아 깨끗하게 씻어 먹어서 밥풀 하나 남지 않았다. 배가 고프고 간식도 없으니 다 마실 수밖에 없었다. 밥을 먹을 때면 늘 밥이 부족했다. 한창 먹을 나이에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밤에 취사반에 가서 몰래 잔반을 훔쳐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들키면 기합을 받았다.⁵⁹⁾

배수로 공사를 하던 김학수에게도 조병창에서의 기억은 배고픔으로 남아 있다. 콩속에 어찌다 쌀이 들어있는, 말 그대로의 진짜 콩밥을 거기에서 먹어 보았다. 그나마 많이나 주었으면 나았으련만, 하는 일에 비해 양이 적어 늘 배가 고팠다. 조병창에서는 가끔 돈을 받았다. 월급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몇푼씩을 받으면 부평에 나가 ‘움무죽’을 사먹었다. 바다에서 나온 ‘움무’⁶⁰⁾로 죽을 쑀었는데 배고플 때 사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었다. 간식 하나 없던 그 시절 움무죽의 맛은 최고였다.

이들에 비해 군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전진수는 음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잘 먹었던 듯하다. 전쟁 중이라고 아마 가장 먼저 군인들에게 물자를 배당했던 것 같다. 그곳에서는 커다란 콩치를 찌서 1인당 한 마리씩 나누어 주었다. 또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커다란 가마솥에 팔죽을 끓여서 반합에 상당히 많은 양을 주었다. 그 때는 잘 먹지 못했으므로 군인들 중 영양실조가 되면 비타민B 결핍증인 각기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젠사이’라고 불렀던 단팔죽을 끓여준 것이다. 그 당시 콩치는 민간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설탕은 조금씩 배급을 주는 통제 품목이었으므로 밖에서는 구할

57)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58)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59)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60) 우뭇가사리

수가 없었다.

배가 고파도 월급이 나오면 간식을 사먹으면 되겠지만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최덕원은 월급을 조금씩 받았는데 얼마나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매우 하찮은 수준이어서 배가 고파도 뭘 사먹기가 어려웠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값도 안 되었다. 주변에는 술집도 없었으므로 술은 일절 접할 수가 없었다. 일성료 기숙사 근방에는 매점이 있어서 과자나 음료수, 빵, 치약, 칫솔 등을 팔았다. 시장하니까 가끔 간식도 사먹고 싶었는데, 월급으로는 그러기에도 부족하였다. 집으로 돈을 부치기는커녕 오히려 집에서 부쳐 와야만 쓸 수 있었다. 조병창에서는 먹고 자는 것만 부담했고 그 외는 모두 자기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조병창에서 주는 돈은 봉급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만큼 액수가 매우 적어 쓸만한 여유가 없었다. 김우식은 조병창에 다니면서 도중에 혼인을 했다. 이웃 마을에 살던 아내가 ‘공출’ 당하는 걸 막기 위해 처가에서 서둘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병창에서 받는 돈으로는 혼자 먹고사는 것만 간신히 해결할 수 있을 뿐 도저히 살림살이를 장만할 수가 없었다. 고심 끝에 살림을 합치지 못한 채 김우식 혼자만 부평의 사택에서 하숙을 하였고, 그의 아내는 충남 청양의 부모님 댁에서 지냈다.

경성부청 식당에 다닐 때는 많지 않아도 월급을 받고 있었던 왕명근은 돈을 벌기 위해 조병창으로 옮긴 이후 3년을 넘게 지냈지만 월급을 받아 집에 보낸 적이 없다. 듣던 것과 달라 불만이 있었지만 보험도 들어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참았다. 예금이라도 대신 해준다고 해서 좋아했지만 단 한번도 통장도 보험증서도 본 적은 없다.

양성공으로 갔던 김상현 역시 한달에 한번 월급을 받았는데, 받아서 무언가 한 기억은 전혀 없다. 무엇인가 쓸만한 액수가 되거나 모아서 집에 보낼만한 액수는 안되었고, 일상용품을 사는 정도였던 듯하다. 지금 군대에서 이등병이 받는 정도의 생활비를 받았던 듯하다.

병원에서 일하던 지영례도 다달이 이름과 액수가 적힌 월급봉투를 받았다.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몇 푼 안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그 만큼 비용을 제하고 월급이 나왔다. 시미즈구미에서 사무직을 맡고 있던 오상기 역시 월급을 좀 받았는데 그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몇 푼 되지 않아 뭔가 하지는 못하고 담배나 사피우고 뭐 좀 사먹고 했던 것 같다. 그는 사무직을 맡고 있었지만 월급 계산은 일본인이 하였다. 그런 일은 절대 조선인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에 비해 2공장에 있었던 변명식과 기차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유만종은 월급을 한번도 받은 기억이 없다. 학생근로보국대로 간 전진수도 마찬가지다.

한편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던 조병창에는 많은 숙박시설이 필요했다. 기숙사와 한인사택, 일본인사택을 꾸준히 마련했지만, 거기에 다 수용하지 못하고 먼 곳에서 출퇴근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조병창에는 조선인 일반공의 사택이 따로 있었다. 백마장이라고 조병창에서 떨어져 있고 기능자양성소에서 가까운 산 밑에 있었다. 조병창에서 20~30분 거리로, 기능자양성소 옆으로 독을 하나 사이에 두고 사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이 숙소는 일본

사람들의 숙소와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조선인만 거주하는 한인촌이었다. 집이 기다랗게 죽 이어진 나가야(長屋) 모양이었다. 넓은 터에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기와집이 1백 채 가까이 일제히 늘어서 있었고, 기다란 건물 사이에는 사람들이 다닐만한 길을 냈다. 주변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다. 사택은 열평쯤 되어 보였고, 지붕이 뽕쪽한 기와집이었다. 아오바료(靑葉寮) 등의 일본사람들 숙소도 조병창 주변에 더러 있었는데, 그들의 숙소는 조선인 숙소와는 달리 별도의 주택으로 따로따로 지었다.

한인촌에서 지내던 숙소는 방 한 칸에 작은 부엌과 작은 방이 딸려 있는 모양이었다. 가족이 두어 식구 되는 집은 하숙을 주지 못하고, 식구가 없는 집은 조병창 공원 한두명씩 하숙을 쳤다. 김우식은 이곳에서 하숙을 했다. 공장에는 공장 시설만 있고 숙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처음 조병창에 갔을 때는 그 일대에 공장만 있고 주택이며 별 다른 것이 없었는데, 나중에 백마장 사택을 지은 것 같다. 사택에는 조병창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거주하고 있었다. 물론 그 근방에는 다른 공장도 없고 차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조병창 사람들 외에는 왕래하는 외지인들이 아예 없었다. 일반공 중에는 부천 소사 같은 데서 출퇴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숙소에서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사택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같이 출퇴근을 했다.

김우식이 살던 사택 주인은 같은 2공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다. 아마도 조병창에 돈을 내는 것 같았다. 같은 공원들이 하숙을 하면서 하숙비를 조금밖에 내지 못했으니 밥이 제대로 나올 리 없었다. 공장에 식당이 없어 숙소에서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고, 야근이라도 하려면 그 밥을 다 싸가야 했다. 다행히 조병창에서는 때때로 배급이 나왔다. 쌀을 배급해 주었는데 기름을 짜고 난 콩깍묵을 섞어서 주었으므로 도시락에도 콩깍묵 같은 것을 섞어서 싸 주었다. 가끔은 간쑈메라고 부르던 납작한 생선 통조림도 나왔다.⁶¹⁾

이에 비해 기숙사에 머물던 일반공들도 있었다. 그 숙소는 일성료(一性寮, 잇세료)라고 불렸다. 단층 건물로 아주 작고 어좁잡은 집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긴 건물에 칸칸이 문만 내어 놓고, 1,2,3,4,호실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방만 죽 길게 연결되어 유치장 같은 모양이었는데, 그런 형식의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조병창 군속들만 거주하는 곳으로, 아마 몇 천명은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일성료에는 개인별 식기와 이부자리 등을 갖추었다. 바닥에는 일본식으로 다다미가 깔려있었고, 1인당 두장씩 담요를 받으면 다다미 위에 한 장은 깔고 또 한 장은 덮고 잤다. 방마다 무연탄 때는 당번과 식사당번을 정하였다. 한 방과 다음 방 벽 사이에 당번이 무연탄을 때서 벽이 따뜻해도록 하여 겨울철 난방을 해결했다. 그렇게 하면 바닥은 다다미방이라 차가웠지만 벽이 따뜻해져서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건물은 벽이 새까맣다. 당번도 무연탄을 캐서 때느라 손이 시커매졌는데 비누칠을 해도 잘 벗겨지지 않았다.⁶²⁾

일성료의 옆에는 관리 청사가 있었다. 일성료의 사령관은 제조소장과 같은 대좌였다. 관리자들은 전부 계급장 단 현역 군인들이었다. 일성료 뒤로는 산이 있었고 앞으

61)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62) 변명식(1928년생, 경기 여주),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로는 큰 광장이 있었다. 일성로 방 한칸은 열한명으로 분대라고 불렀고, 그 중에 분대장이 한명 있었다. 분대장은 오랫동안 있었던 경험 있는 사람이 맡았다. 분대의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고 소대장에게 보고하고 또 부대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제일 중요한 전달사항은 규율을 잘 지켜서 개개인이 자기 목표량을 달성하라는 것이었다. 무언가 닦는 일을 맡은 사람도, 구멍을 뚫는 사람도, 쇠를 다루는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 목표량이 있었다. 일성로에는 매점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이발소도 몇 군데 있었다. 군속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곳이었다. 왜정 때는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전부 머리를 짧게 깎았다. 또 각 기숙사 건물 주변으로는 공동화장실이 있었다.⁶³⁾

한편, 기능자양성소의 기숙사에서는 방마다 1개 소대 10명 가까이가 함께 잤다. 양성소 기숙사는 대개 한두살 차이의 동년배로 구성이 되었다. 그런데 동향에서 함께 간 친구들은 동원 이후에는 서로 자주 만날 수가 없었다. 그 시절에는 언제나 같은 지역에서 함께 온 사람들을 모두 다 나누어 서로 다른 곳으로 배치하였다. 따라서 기숙사 한 방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⁶⁴⁾

기숙사에는 대중탕 같은 목욕탕이 있었고, 이곳의 방 역시 다다미방이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다다미에 숨어 있던 빈대가 물어 대서 따끔하고 아픈 것이 밤새 이만저만 고통스럽지가 않았다. 다다미는 빈대 소굴이었다. 장마철이면 더욱 힘들었다. 침대에서 자면서 침대 다리 밑에 물그릇을 받쳐놓고 못 올라오게 해도 빈대가 달라들어 밤새 잠을 설쳤다. 불을 켜고 잡으려 하면 어찌나 빠른지 이미 다 숨어버렸다. 양성소 측에서 빈대를 막으라고 나프탈렌을 ‘바게스’로 퍼다 주었지만 그것으로는 도통 빈대를 해결할 수 없었다.⁶⁵⁾

양성소 학생들이 아침에 조병창으로 일하러 출근할 때면 양성소장이 ‘잇데라샤이’하고 ‘잘 다녀오라’는 인사말을 하였다. 그러면 학생들은 ‘잇데미리마스’하고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였다. 양성소에서 조병창까지 흠길을 줄지어서 걸어 후문으로 들어갔다. 30분 정도 걸은 듯하다.⁶⁶⁾

하역을 하던 유만종 일행은 창고 같은 곳에서 지금의 내무반처럼 꾸며진 마루방에서 50명 정도가 같이 나란히 누워서 잤다. 오상기가 일하던 시미즈구미 공사장의 숙소는 여러 개의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안에 양쪽으로 나무판자를 깔고 그 위에서 여러 명이 잠을 잤다.

학생근로보국대로 간 전진수 일행은 현역 군인들의 감독을 받으면서 조병창 주변의 미쓰비시제강 사택에서 머물렀다. 담임 선생님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 사택은 목조로 된 2층의 기성건물이 길게 들어서 있었다. 사택이 경인선에 바로 접해 있어서 경성과 인천으로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2층에서 볼 수 있었다. 거기에서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식사하고 교대하고 했다. 일은 2교대로 쉬지 않고 계속한 것으로 기억되지

63) 윤용관(1929년생, 충남 공주),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변명식(1928년생, 경기 여주)

64)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65)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66)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만, 학생들은 낮에만 일을 했다. 밤에 들어간 팀이 따로 있었는지, 숙소에 오면 인원이 빠져 있었고 그곳에서 자곤 했다.

조병창에서의 일상은 아침, 저녁 밥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공장에 가 있었다. 다행히 일요일에는 일을 쉬었고, 저녁에 인원점검 전까지만 들어오면 되었다. 조병창에서 논다는 건 드문 일이었다. 논다고 해도 기껏해야 근방에 다녀오는 것이었는데, 놀러 다닐 데라고는 주안 아니면 인천밖에 없었다. 조선인 사택의 주변은 다 산이었다. 숙소에서 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지금의 주안으로, 그 때는 전부 다 염전이었다. 일요일이 되면 그 고개를 자주 넘어다니곤 했다. 가끔은 같은 방 사람들끼리 지름길을 통해 주안을 거쳐 인천까지 가서 시내를 구경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돈이 없었으므로 외출해서도 뭔가 사먹고 한 기억은 없다. 조병창 주변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갈 곳이 없었다.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인절미 조금씩 파는 것 그것뿐이었다.⁶⁷⁾

바로 옆에 있던 기능자양성소 학생들도 일요일이면 양성소 뒷산을 넘어 주안으로 놀러다녔다. 한시간 정도면 달을 수 있어서 염전에 가서 가재도 잡고 게도 잡고 했다. 썰물이 되면 빨밭에 게가 우글우글했다. 김상현은 언젠가 그 게를 주워다가 삶아서 같은 방 친구들에게 먹었는데, 친구들이 이질에 걸리는 바람에 간호하고 뒤통다끼리 하느라 애를 먹었다.⁶⁸⁾

그나마 해방 직전에는 ‘월월화수목금금’이라고 부르면서 공휴일이 의미가 없어졌고 일요일에도 일을 했다. ‘게스게스카스미모꾸킨킨’이라고 하는 노래까지 불렀다. 그만큼 일본이 다급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군속들은 1년에 한두차례 설이나 연휴가 되면 집에 다녀올 수 있었다. 그러나 휴가를 다니려고 해도 돈이 필요했으므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다. 김우식은 같은 고향 사람 넷이서 함께 설을 쇠러 충남 청양의 집에 다녀온 적이 있다. 부평에서 광천까지는 기차를 타고 갔지만 광천에서 청양까지는 걸어서 갔다. 차 시간도 없었고 차 탈 돈도 없었다. 선달그믐, 광천에 도착해서 집까지 두세 시간을 걸어 도착하니 새벽에 이미 차를 모시고 난 후에야 도착했다. 그렇게 집에 다녀갔지만, 오가는 데 하루씩 걸리고 도착하면 며칠 목지도 못한 채 그냥 다시 조병창으로 갔으므로 고생스러웠던 기억만 있다. 그렇다고 아내가 면회를 다녀갈 형편도 안되었다. 최덕원도 한차례 집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닷새 정도 다녀온 것 같은데, 오가는 데 하루씩 걸려서 사흘쯤 쉬었던 듯하다. 휴가비를 받았던 기억은 없다.

일요일에는 면회가 가능했다. 윤용관은 서울에 있던 형님들이 면회를 다녀간 기억이 있다. 정문 쪽에 면회소가 따로 있어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다.

한편, 조병창에서는 공장 일에 낯선 사람들이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작업에 들어갔으므로 부상이나 사고가 잦았다. 조병창의 규모가 크고 부상자도 많았으므로 조병창에는 전속 병원이 있었다. 조병창에서는 날마다 많은 환자들이 의

67)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유만종(1927년생, 경기 김포)

68)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무과로 들이닥쳤다. 조병창 병원 서무과에서 일했던 지영례는 일하다 팔이 떨어진 사람, 다리가 부러진 사람 등 별의별 사람이 참 많이도 다녀갔다고 회고했다.

조병창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국민학교를 막 졸업한 나이 어린 학생들이 많아 사고와 부상이 더 잦았던 내용도 확인되었다. 지영례는 조병창에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한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면서, ‘한번은 어떤 아이가 옷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팔이 하나가 떨어져서, 팔 하나 따로 가져 오고 좀 있다가 아이를 따로 데려 오고 하는 일도 있었어요.’라고 구술하였다. 어떤 날은 팔을 다친 아이들이 땀 명씩 오기도 했다. 아직 어려서 일은 서툰데 기계를 쓰다가 그냥 끌려 들어갔기 때문이다.

기능자양성소장은 제1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한쪽 팔이 잘린 아이를 자기 방에서 같이 데리고 있었다. 김상현 일행보다 양성소 1년 선배인 그는, 판금공장에서 7밀리미터 철판을 찍어내는 프레스 작업 도중 철판이 쌓이자 그걸 치우려고 하다가 체중이 다리에 실리면서 철판이 내려오게 하는 ‘베다’를 실수로 밟았다. 그 바람에 ‘털컹’하고 큰 철판이 내려와 팔이 잘렸다고 한다.

2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도 있었다. 2공장에서는 피대를 이용해 기계를 돌리고 있었는데, 잘못해서 피대에 사람이 말려 들어가면 손이 잘리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었다. 왕명근은 어느 날 선반 기계에 쇠를 굽는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었다. 한두달동안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는 기간에도 출근부에 도장을 찍어야 했으므로 출근을 하였지만 선반작업은 하지 못하고 한손으로 심부름을 하였다.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받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신경을 다쳤는지 그 손가락은 구부러지질 않아 이후 평생 쓰지 못하고 있다.⁶⁹⁾

지하의 검사계에 있던 윤용관은 칼자루를 하나씩 잡고서 잘 마무리되었는지 검사하였다. 그러던 중 1945년 봄인지 여름인지 언젠가부터 점점 옷이 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총과 칼에는 나무로 총신과 칼자루를 만들어 댔고, 나무를 미끈하게 하기 위해 그 위에 옷칠을 했다. 그걸 매일 만지면서 옷이 오르자 얼굴이 부어올라 함지박만해지고 눈만 빼꼼하게 보였다. 가렵고 통통 부어오른 얼굴로 죽는 줄 알았던 그는 조병창 의무과를 찾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얼굴에 하얀 약을 발라 주었다. 옷오른 데 바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 바람에 일하는 현장에는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은 되지 않았고, 자기 방에 있으면서 통원치료를 했다. 병원에는 상처가 있거나 부상이 심한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⁷⁰⁾

3) 노동현장의 단절과 통제

69) 왕명근(1927년생, 전북 익산),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70) 조병창에서 윤용관이 아프다는 소식을 집에 전해주지 않아 가족들은 해방 후 그를 만날 때까지 전혀 내막을 알지 못했다. 옷이 올라 부어오른 얼굴은 빠지지 않았고, 결국 그 길로 한센병이 발생하였다. 조병창에서 나와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에서 한센병 환자를 소록도에 격리해서 치료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소록도에 가니 6천명의 환자가 있었다.(윤용관(1929년생, 충남 공주))

조병창에 들어가면 굴뚝 속에 들어간 것처럼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조병창은 그 자체로 규모가 크기도 했지만 군사시설이라고 해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숙소와 작업장의 한정된 지역에서 정해진 길 외로는 가볼 새도 없고 분위기가 삼엄하여 가볼 수도 없었다.

조병창을 가로질러 출퇴근하던 지영례는 지나는 길에 소화고녀의 친구들과 국민학교의 동창들을 만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다니는 공장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몇 공장 누구라고 하는 표가 옷에 붙어 있어서 외부인은 절대 출입을 할 수 없었다. 공장에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만 갈 수 있었고, 자신이 일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는 돌아다니면 안되었다. 다른 곳에 얼쩡거리다가는 의심만 받게 되었다. 출입이 금지된 가운데도 가끔은 시찰단이 완장을 차고 공장 안으로 들어와 순시를 하였다. 공장장을 앞세우고 죽 열을 세워서 사진도 찍고 그랬다.⁷¹⁾ 그래도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할 일만 계속 해야 했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공장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만 열심히 해야지 한눈을 팔다가 걸리면 그야말로 큰일이었다.⁷²⁾

조병창에서는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려웠고 알려고 해도 안되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되었다. 오직 한가지 일만 담당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했다. 1942년 봄 조병창에 들어간 왕명근은 해방될 때까지 3년 내내 커다란 선반공장인 2공장에서 한가지 일만 했다. 총에 찌르는 단검의 머리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 큰 공장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모두 각자 한가지 일만 담당했다. 칼머리를 만들 때도 동그란 쇠를 깎는 사람도 있고, 자르는 사람도 있고, 흠을 파는 사람도 따로따로 있었는데, 옆면을 깎는 사람은 언제나 옆면만 깎았고, 구멍을 뚫는 사람은 언제나 구멍만 뚫었다. 모두 다 자신이 맡은 것만 만들었을 뿐, 바로 옆에서는 뭘 만들고 있었는지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각자 정해진 부속만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를 어떻게 조립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3년 넘게 조병창에 있었지만 총 만드는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완성된 총을 한번 잡아본 적도 없다.⁷³⁾

따라서 조병창이 총과 칼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나마도 자신이 하는 일밖에 몰랐다. 날마다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주어진 같은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숙소에서 밥 먹고 자는 것뿐, 조병창의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거나 구경을 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조병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린 나이에 가서 그저 밥 먹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할뿐 아무 것도 몰랐다. 아침에 가서 일하고 때 되면 점심 먹고 다시 일하고 또 기숙사로 가는 게 하루 일과였다. 1공장의 주물을 2공장에 전달하는 일을 맡아서 공장 안팎을 돌아다닐 수 있었던 김상현의 경우에도 조병창에 병원이나 매점 같은 시설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만큼 조병창 내부가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던 것이다.⁷⁴⁾

71) 외부인의 공장 시찰에 대해서는 이상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 25, 2016.8, 195~196쪽 참조.

72) 지영례(1928년생, 인천 부평), 변명식(1928년생, 경기 여주)

73)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왕명근(1927년생, 전북 익산),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74) 변명식(1928년생, 경기 여주),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왕명근(1927년생, 전북 익산),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조병창에서의 일과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졌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5시에 일어나서 운동장에서 ‘군기를 잡고’ 체조를 하고 1분대씩 줄을 서서 기숙사 주위로 구보를 하였다. 이후 6시에 아침식사, 6시 30분에 광장 집합, 6시 40분에 출발하는 식으로 일정표에 맞추어 움직였다. 밥을 먹고 큰 광장인 운동장에 죽 나가 서 있으면, 머리가 하얗고 나이든 육군대좌 소령이 단상에서 그 날 주지시킬 일에 대해 말하고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로 다녀오라고 인사를 했다. 그러면 도열해 서 있던 군속들이 일제히 다녀오겠다고 답했다. 그리고는 부서별로 네줄씩 줄지어서 가기 시작했다. 숙소에서 공장까지는 도보 20분 정도 거리로, 걸어가거나 뛰어가곤 했다.⁷⁵⁾

기능자양성소 학생들도 아침에 조병창까지 일하러 갈 때면 구보를 했는데, 조선사람과 일본사람이 서로 쥐어박고 욕을 하면서 갔다. 조선인 숫자가 워낙 많았으므로 일본 친구들에게 ‘쪽발이’라고 놀려도 맞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 조병창으로 출근하는 길에는 일본 군가를 부르면서 갔다. 그 노래들은 이미 국민학교에서 다 배운 것이었다.⁷⁶⁾

작업 중에는 그냥 연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미국 비행기가 오는 건지 걸핏하면 ‘윙~’ 하면서 사이렌이 울렸고, 그러면 다 같이 방공호 속으로 들어갔다. 방공호는 공장마다 건물마다 지하에 따로 있었다. 병원 건물에도 방공호가 따로 있었다. 평소에는 쇠문을 닫아 두었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일하다 말고 다 같이 나와서 줄지어서 그리로 들어갔다. 방공호 속은 굉장히 깊고 넓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구루마’에 태워 데리고 들어갔다.⁷⁷⁾

조병창은 참으로 감시가 심하고 규율이 엄했다. 조병창의 간부들은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조병창의 고위직들은 차를 타거나 말을 타고 다니곤 했다. 조병창장이 말을 타고 다닐 때면 저 멀리 100미터 앞에만 나타나도 경례를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헌병들이 쫓아와 경을 쳤다. 헌병들은 다 칼을 차고 다녔다. 지영례는 그들이 군복에 긴 칼을 차고 ‘철컹 철컹’ 소리를 내면서 긴 구두를 신고 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 그들이 나타나면 아무 데나 숨곤 했다.⁷⁸⁾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사거리 귀퉁이마다 검문소가 있었고 그 안에는 헌병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다. 도망을 가거나 누군가 나쁜 짓을 할까봐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조병창에서는 어찌나 무서운지 꿈쩍하기가 힘들었다. 누군가 도망이라도 쳤다 하면 경비가 더 심해졌다. 4년 가까이 조병창에 있었던 김우식의 경우에도 자신이 근무했던 2공장 이외의 다른 공장은 가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활동도 할 수 없었다. 공원들은 작업 도중 공장 내에서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만나서 얘기를 나눌 겨를도 없었다.

작업장 내의 구타도 적지 않았다. 공장마다 헌병대가 있었는데, 그 책임자는 지금의 중사나 상사급인 군조였다. 고초의 위인 군조는 그리 높은 계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75) 윤용관(1929년생, 충남 공주), 변명식(1928년생, 경기 여주),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76)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77) 지영례(1928년생, 인천 부평)

78)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지영례(1928년생, 인천 부평)

그렇게 권한이 세고 무서웠다.⁷⁹⁾ 군조는 긴 칼을 차고 다녔는데, 그에게 잘못 걸리면 호되게 맞고 거의 죽어나갔으므로 공원들은 그를 ‘사자’라고 불렀다. 규율을 위반해서 그랬는지, 별 잘못이 없어도 겁을 주려고 그랬는지 한번 걸리면 데리고 가서 죽는 소리가 나도록 때리곤 했다. 특히 무기의 생산 책임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사람을 두들겨 잡다시피 하면서 바짝 더 심하게 굴었다. 때때로 책임량을 다하지 못하면 잔업을 했다. 교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하던 일을 밤에도 잠을 안자고 계속해야 하는 야근이었다. 졸음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일을 하고 그랬다.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큰일이었다. 그런 때는 헌병대가 작업장에 와서 순찰을 돌곤 했는데, 헌병들이 슬슬 돌아다니면서 저만치서 바라보거나 옆으로 지나갈 때는 진짜 무서웠다.⁸⁰⁾

평소에도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독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거나 물건을 훔쳤다고 하면서 얼굴이든 어디든 보이는 대로 때리고 ‘녹여버렸다’. 공장 내에서도 툭하면 집합해서 ‘엎드려 뺨쳐’를 했다. 그들은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가 적힌 완장을 차고 총을 들고는 작업장 내에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잠시라도 쉴라치면 반장이 갑자기 ‘고치라에 고치라에(こちらへ)’ 하면서 “너 왜 그렇게 안하느냐? 근무태만 아니냐?”라고 일본말로 소리를 치곤 했다. 엄격한 군기에 도저히 버티기가 어려웠다. 그래서인지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도망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도망치다 붙잡히면 죽거나 영창에 가야 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조병창을 탈출한 것이다.⁸¹⁾

이러한 분위기는 어린 학생들이 거주하던 기능자양성소의 기숙사까지도 그대로 연결되었다. 김상현은 8명이 한 방에서 잤다. 방에서는 조치원 출신의 1년 위 선배가 방장을 맡고 있었는데, 상하 구별이 매우 엄격해서 방장에게 절대 복종해야 했다. 말 좀 하는 사람, 멍청한 사람, 장난치는 사람들은 모두 두드려 맞았다. 방귀 소리만 나도 일이 벌어졌다. 원수라도 진 사람처럼 찬물을 갖다 놓고 수건을 물에 적시면서 착착 귀싸대기를 때려서 나가떨어지고 일어나면 다시 때려서 나가떨어지곤 하였다. 어린애 같이 조용히 있어야 했는데, 입바른 소리를 잘 했던 김상현은 상급생 방장에게 자주 얻어맞았다. 한두대만 맞아도 정신이 없고 얼굴이 얼얼하였다. 그럴 때마다 고향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고는 엄마,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울던 열다섯 시절의 기억이 90살이 된 지금도 선명하다.⁸²⁾

공장에서 퇴근하기 전에는 더러 신체검사를 했다. 부품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옷을 벗겨보지는 않았지만 안에 뭔가 숨기지는 않았는지 몸을 짚어보곤 했다. 이전에 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미리 겁을 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조병창 안에서는 모두 일본말을 했다. 조선인 친구들끼리 있을

79) 군소(軍曹)는 옛 일본육군의 하사관 계급 중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의 중사에 해당한다. 고쵸(伍長) 역시 옛 일본 육군의 하사관 계급중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의 하사에 해당한다.

80) 변명식(1928년생, 경기 여주),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81)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변명식(1928년생, 경기 여주)

82)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때는 조선말을 했지만, 직원들이 있으면 일본말을 써야 했다. 때때로 부모님께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 내용을 다 검열했으므로 편지도 마음대로 부칠 수가 없었다. 집에서 편지가 올 때도 검사를 하고 전해줬다.⁸³⁾

4. 강제동원에 대한 인식과 노무자의 저항

1) 강제동원과 일제에 대한 인식

인천조병창으로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그 시절 조병창 혹은 강제동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조병창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번 부서에 배치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고 그 곳에만 있었다. 조병창에서는 이것저것 배울 수 있게 다른 일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 이것저것 다 알게 되면 총을 만들 수 있게 될까봐 그랬던 것 같다. 99식 소총을 만들었지만, 일반공으로 갔던 조선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총을 몇 자루나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 길이 없었다. 김우식은 조병창에 있던 4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 방아쇠 깎는 일만 하였다. 하루에 방아쇠를 얼마나 많이 깎았는지 헤아릴 수도 없었다. 다른 기술은 배운 것이 없었다. 생각해보면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을 배웠다. 병기공장에 다니면서도 총 한 자루 만드는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자신이 무엇을 만드는지도 모르는 채 겨우 부품 하나 잘 만드니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다. 차라리 작은 공장에 다녔더라면 이것저것 만들면서 기술을 배웠을텐데 조병창에서 쓸 데 없는 일만 했다. 진학을 대신하여 기능자양성소로 기꺼운 마음으로 들어갔던 김상현도 부속의 주물을 1공장에서 2공장을 배달하는 것 외에 사무직으로서 글씨를 많이 쓴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별로 새로운 걸 배운 기억이 없다.

배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우식은 젊은 시절 4년 가까이 조병창에 있었는데, 그동안 돈을 모으지도 못했고 결혼을 하고도 아내와 떨어져 살아야 했다. 남들보다 오랫동안 조병창에 있었지만 매일 조병창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고 공장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조병창은 직장이 아니고 순전히 착취를 한 것이다. 그 술한 조선 사람들이 전부 착취를 당했던 것 같다.

분위기가 그러하니 강제로 동원되어 언제나 같은 일만 하던 그들은 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현실을 피하고 싶었다. 김학수는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낮 12시가 되면 미국 비행기 B-29가 떴다는 얘기가 들렸다. 언젠가는 B-29가 김포공항을 폭격하여, 쿵쿵 하는 폭음소리가 조병창까지도 들렸다. B-29가 떴다고 사이렌이 울리면 배수로를 파다 말고 다 같이 방공호로 들어갔다. 한 시간 가까이를 일하지 않고 방공호에 숨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는 그 시간이 좋았다. 그래서 12시만 기다려졌고, B-29가 뜨지 않으면 진짜 서운했다.

83) 왕명근(1927년생, 전북 익산),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지영례(1928년생, 인천 부평),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이러한 마음으로 조병창에 갔으므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거의 생각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변명관은 그 때 일은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오래 되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기억하기가 싫다. 어린 시절 일본어로 공부했지만 일본어가 기억나지 않고 발음하기 싫은 것과도 비슷하다. 드문드문 떠오르는 기억 속의 조병창에는 엄청 큰 규모의 공장 건물이 있었을 뿐이다. 운용관 역시 그 때는 한국 이름 대신 이토 쇼기치라고 불렸고, 어디를 가나 똑같이 일본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던 일본말을 지금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유만종은 TV에서 조병창이 있었던 부평에 굴이 있다고 나온 것을 보았지만 가까이서 살면서도 그 주변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조병창 사람들 사이에서는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일본은 망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왕명근은 언젠가 일요일에 사택 뒷산에 가서 놀다가 왜솔이라고 부르는 해송의 속알맹이가 다 죽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걸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는 친구들이 일본 사람들 이제 망하겠다고 했고,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얼마 못가 망했다고 회고하였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일상적인 자연현상 속에서도 일본의 장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최덕원은 자원이 부족하여 허덕이던 일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당시 일본은 자원이 부족했는데 그 중에도 기름이 부족해서 자동차를 목탄을 굴려서 화력을 이용해 운행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할 때도 시원찮으면 수시로 다 내려서 차를 밀곤 하였다. 집집마다 소나무의 솔꽂이를 몇 킬로씩 따서 내야 했으므로 산으로 그걸 따러 다녔다. 솔꽂이를 모아두고 흙에 바쳐 아래에 불을 때면 솔꽂이에서 기름이 나왔다. 송탄유라고 부르는 그 기름은 군사용으로 쓰였다.

일본의 전력의 전쟁 상대국인 미국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도 강했다. 김상현 일행은 일하던 도중 가끔 공습경보가 내리고 방공훈련을 했다. 앵~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공장 옆에 있는 구덩이로 대여섯명씩 몸을 숨겼다. 언젠가는 미국비행기가 높이 떠서 김포공항 쪽으로 비행운이 드리운 것을 보고 놀랐다. 일본 비행기는 미처 올라가지 못하는 높이였기 때문이다.⁸⁴⁾

또한 1945년 일본이 공습을 많이 당해서 군수공장의 손이 딸린다고 해서 인천조병창의 제1제조소에서 200명, 평양 제2제조소에서 200명, 합 400명 정도가 일본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다. 기능자양성소 1,2,3학년 학생 중 건강한 사람들 다수가 갔다. 나고야인지 고베인지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일손을 도우러 갔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으로 간 일행들은 공습으로 아무 일도 못하고 몇 달간 그저 식객놀음만 하면서 지내다가 귀국을 했다. 그 때 부평에 들렀다 간 평양 제2제조소 친구들도 구경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일본의 전황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눈치챌 수 있었다.⁸⁵⁾

조선인이 일본의 현실을 눈치챌까봐 조병창 간부들은 더 엄격하게 노무자들을 대했다. 그러한 간부들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김우식은 간혹 일하는 사람 중

84)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85)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에도 일본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본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일을 지시하면서 부려먹고 피를 부리나 안 부리나 순전히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

그들의 감시로 인해 규율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습관처럼 몸에 배기도 하였다. 지영례처럼 조병창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다녔지만, 멀리 사는 간호사들은 기숙사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였다. 출퇴근을 하면서도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때 그랬다. 사택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을 해야지 지각을 하면 절대 안되었다.⁸⁶⁾ 또한 김상현이 보기에는 도망친 몇명 외에는 왜정 때는 일을 안하려고 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나태한 사람,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없어 보였다. 일할 때도 간부들하고 부딪히거나 그러는 것은 안되는 일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해방 당시 열일곱, 열여덟 살로, 일제 치하 36년 중 후반기 절반을 살았던 한창 나이였기 때문이다.

김상현은 조병창의 1공장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조병창 전반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기능자양성소를 때때로 ‘학교’라 불렀다. 전쟁만 아니었다면 일본사람들이 공부를 가르쳐줬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신이 절대 강제로 동원되지 않았으면서 일제 지배하의 모범생의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해방되고 나서 인천이나 부평에 다시는 가본 적이 없다. 목동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도 가고 싶지 않았다. 조병창에서의 경험을 그동안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다.

장화두는 조병창에서 일하기가 힘들어 탈출을 했지만, 생각해보면 일본사람들한테 압제당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고향에서 농사지어 공출에 다 바쳤고, 그걸 못내면 늘상 쫓아와서 짚뿔가리고 나무뿔가리고 창으로 콕콕 쏘아서 들춰냈다. 소도 공출당하고 가축이 필요하다고 큰 개도 한 마리 공출당했다. 시골에서 농주를 담가먹으면 뒤져서 벌금을 매겼고, 나무가 없어서 산에서 청솔가지를 걷어오면 또 벌금을 매겼다. 봄에는 집안 내부까지 청소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을 하러 나왔다. 열여섯살 먹은 동네 처녀 한명은 그만 공출되어 정신대에 뽑혀 나갔다. 결혼하면 안붙들려 간다고 장화두에게 결혼하자고 해서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결혼을 하느냐고 안한다고 했다. 그 때 그 처녀는 겁을 많이 내고 있었다.

왕명근은 일이 없는 일요일이면 사택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친구들과 고향타령을 할 뿐 비밀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못했다. 좋네 나쁘네 비판적인 말을 하면 바로 움아갔다. 일본이 좋다 나쁘다고 평하는 건 대번 큰일 날 일로 할 생각도 못했다. 중학생이었던 전진수도 친구들끼리는 일본의 전쟁이 언젠가는 망할거다 하는 얘기를 했다. 아무데서나 이야기하면 ‘비국민’이 되고 큰일이 났으므로 숲에 가서 몰래 했다. 밖에서는 일본이 진다는 얘기는 입 밖으로 낼 수도 없었다. 70년 전의 일을 떠올리면 그때 일본 사람들이 중학교 2학년생에게 참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밀려온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노예와 같은 존재였다.

윤용관은 1년 4개월을 그곳에 있으면서 월급도, 여비도 일절 받은 적이 없으니 따지

86)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지영례(1928년생, 인천 부평)

고 보면 참 억울하다.⁸⁷⁾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는 ‘애국’하는 일이라고 했으므로 월급 이야기 같은 건 꺼낼 수가 없었다.⁸⁸⁾

2) 노무자의 저항, 탈출

조병창에 한 번 동원된 사람들은 자신의 임의로 그곳에서 나갈 수가 없었다. 일정 기간을 정해 학교에서 단체로 일하러 온 학생들을 제외하면, 조병창에 동원된 사람들은 해방이 될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노동현실로 인해 일반공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병창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었다. 인천조병창에서는 ‘각 건물 사이마다’ 곳곳에 배치된 군인들의 엄격한 감시가 행해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본 구술 작업의 대상자 12명 중에도 3명이 인천조병창에서 탈출했다고 구술하였다.

조병창에서의 감시가 몹시 심했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걸리면 징역간다는 소문 때문에 대개는 포기하고 있었다. 전쟁이 막판에 치달을수록 공장과 기숙사는 밤낮으로 쉴 틈이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그만큼 사람들은 혹사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도망칠 생각을 못했다. 도망쳐 봤자 경계가 삼엄해서 가능할 것 같지 않았고, 대부분 그럴 생각조차 못했다. 도망가면 금방 붙잡혀 오고 큰 일이 날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다. 국민학교 5학년 때 동원된 윤용관도 함께 갔던 친구가 교육 후 부서를 배치받기 전에 몇 개월만에 도망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은 자주 했지만 어린 나이였던 그 때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아버지 대신 동원된 김학수의 경우도 도망을 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붙들려 갈 것이 염려되어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⁸⁹⁾

그러나 삼엄한 감시로 인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번 구술에서 조직적인 저항으로 연결된 내용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일제 말기의 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에 적지 않은 조선인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사례를 살펴본다.

한약방에 있다가 돈을 벌기 위해 조병창에 들어간 김우식은, 조병창에 도착하자마자 좋다고 전해들은 말과는 전혀 달랐던 데 실망했다. 갈 데가 아니었던 데를 간 셈이다. 무엇보다 엄격하고 자유가 없는 생활이 힘들었다. 한약방에 있을 때도 봉급은 없었지만, 먹고 입고 지내는 것이 보장되었고 용돈을 조금씩 받는 생활을 하면서 한약 만드는 것도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돈을 벌러 간 조병창에서는 돈도 벌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 맨날 배고프게 지내느라 힘이 들었다. 처음부터 마음이 그러니 공장에는 애착이 가지 않았다. 늘 언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다. 안되겠어서 그만 두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그만 둘 수가 없었다. 사직서를 내도 받지 않았고 언제까지라

87) 장화두는 어느 날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고, 그것을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로 동원되었다고 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88) 윤용관(1929년생, 충남 공주), 유만종(1927년생, 경기 김포)

89)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윤용관(1929년생, 충남 공주), 유만종(1927년생, 경기 김포)

는 기한도 없었다. 더욱이 1944년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자신도 나이가 차니 조만간 징병이 될테고, 징병이 되면 집에 들르지도 못한 채 곧바로 군대로 가게 될까봐 염려가 되었다. 더욱이 그는 혼인을 했으면서도 아내와 떨어져 살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는 계속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1944년 12월 어느 날 그는 징병 시기가 임박했다는 생각이 들자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무작정 부평역 방향으로 향했다. 출근한다고 나서서는 무단결근을 하였다. 열일곱살이던 1941년 조병창에 들어가서 1944년 스무살에 조병창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다.

무단이탈 이후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어차피 숨어있어도 잡힐 것 같아 그냥 집으로 가기로 했다. 예상했듯이 집에 도착한지 보름이 채 되지 않아 지서에서 연락이 왔다. 조병창에서 도망쳤다고 잡아오라고 통보를 한 것이다. 헌병대에 잡혀가면 큰일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다.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 지서에는 일본인 지서장과 조선인 순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닭을 잡고 계란을 삶아서 지서장에게 들고 갔다. '와이로'를 써서 조병창으로 다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효과가 있었는지, 지서장이 그에게 부평이 아닌 평양으로 가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평양에 있는 군무예비훈련소로 이중 동원이 되었다.⁹⁰⁾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조병창으로 들어간 변명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병창 생활을 배기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갔다. 어린 나이에 자유롭게 지내다가 별안간 군기가 엄한 곳에 들어가니 참고 이겨내기가 힘들었다. 조병창에서는 여름이면 이질에 걸리는 사람이 많았다. 변에서 피가 나오고 곱똥이 나오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것도 무서웠다. 하루하루 참고 있던 변명식은 결국 도망을 치기로 마음먹었다. 평소 도망칠 길을 유심히 봐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에 있다가 한 밤에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는 담벼락으로 향하였다. 부평이 어디쯤에 위치한지도 모르고, 그냥 울타리를 벗어나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다. 일단 도망치고 싶었다. 더 이상은 있고 싶지 않아 덮어놓고 그냥 나왔다. 둘러친 철조망을 마구 뜯었다. 사방이 전부 막사 천지인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발길 떨어지는 대로 내뺐다.

가다보니 멀리 부평역이라고 써있는 것이 보여 돌아서 산으로 올라갔다. 길로 나가서 차를 타고 가면 곧바로 체포될 수 있으므로 산으로 길을 택한 것이다. 산 위에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내려보니, 도망친 사람을 붙잡기 위해 빨간 차와 헌병들이 역 주변 사방에 늘어서 있었다. 빨간 테두리를 한 모자를 쓰고 칼을 빗들고 장화를 신은 모습이었다. 왔다갔다 하면서 차만 들어오면 막고 수색을 하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으실으실했다. 도로를 피해 산길로만 몇날 며칠을 걸었다. 한 달 가까이 걸린 것 같다. 산속으로 가다 누구를 만나면 여기가 어딘지 물어보고 또 갔고, 밤이 되면 산 속에서 그냥 잤다. 다행히 날이 춥지는 않았다. 가면서 열매도 따먹고 농가가 있으면 들어가서 얻어먹기도 했다. 밥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밥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사람물골 같지 않으니 사람 취급을 받기 어려운 듯했다. 그때 고생한건 이루 말할 수가

90)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없다.

일단 수원까지 가서는 여주 방향으로 다시 사뭇 걸었다. 철길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다. 철길을 등지고 여주 땅은 이쪽으로 간다 판단하고 방향을 잡았다. 차를 눈앞에 두고도 타지 못하고 걸어갔다. 그렇게 해서 여주에 도착했지만 집으로는 갈 수가 없었다. 도망칠 때부터 계획한 대로 누이의 시댁이 있는 점동면 도리로 향하였다. 두메산골이라 피신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누이 부부는 서울로 이사를 해서 없었는데, 그는 누이도 없는 사돈집에서 뒤꼍에 파놓은 호에 숨어 낮에는 거기에서 지내고 밤에는 나와서 누이 방에서 잤다. 호의 바닥에는 짚을 깔고 등잔을 켜고 지냈고, 사돈 어르신들이 그곳으로 세 끼 밥을 갖다 넣어주었다. 한 달 가량을 그렇게 생활하던 어느 날 사돈 마나님이 해방이 되었다고 나오라고 했다. 나가보니 전부 태극기를 흔들고 야단법석이었다. 그제야 마음 편히 집으로 갈 수 있었다. 그동안 어머니는 날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의 안전을 빌고 계셨다.⁹¹⁾

장화두는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조병창에서 일본으로 일하러 갔던 기능자양성소의 친구들이 폭격이 심해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귀국하자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일본에 날아들던 B-29가 인천까지 날아와서, 까마득히 높게 떠서 비행기는 보이지 않고 하얀 비행운이 남은걸 보자 겁이 났다. 그 때 조병창에서는 B-29가 날아 왔어도 숨거나 훈련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부터 공부는 완전히 그만 두고 현장에 가서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했다. 기능자양성소 뒷산 위에 포가 없어서 나무로 포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는 가짜 포를 세워놓을 만큼 일본이 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린 나이에 열두시간씩 일하기도 너무 힘들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왜놈 밑에 있어서 뭐하겠나’ 싶었다. 같이 간 동기들 몇 사람에게 탈출하자고 선동하자 다들 그렇게 하자고 응했다. 장화두는 제일 먼저 탈출을 실행했다. 나중에 나오겠다고 했던 다른 친구들은 그냥 안에 남아 있다가 해방을 맞았다.

탈출은 쉽지 않았다. 부평역에 가면 휴가증이 있어야만 차표를 끊어 주었다. 역에는 헌병이 지키고 있었고 조병창 사람들은 군인 옷 비슷한 군속 옷을 입고 있으므로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탈출을 마음먹은 후 휴가를 다녀온 사람에게 증명서 좀 보자고 하니깐 그에게 주었다. 장화두는 그 휴가증에 잉크 지우는 약으로 이름과 날짜를 문질러서 지우고 자신의 이름과 새 날짜를 써넣었다. 그걸 가지고 부평역에 가서 직원에게 보여주고 대구까지 가는 표를 달라고 해서 받았다. 개찰구에는 헌병이 딱 버티고 서 있었다. 군속 옷을 보고 증명서를 보자고 했다. 증명서를 보여주고 무사히 통과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주재소에서 그를 잡으러 왔다. 잡히면 영창에 갈 것이 분명했다. 큰일 났다 싶어서 바로 경상남도 진해까지 도망을 쳐서 며칠을 보냈다. 이후 경상북도 청도에 있는 혼인한 누이의 집에 숨어서 지냈는데 한달쯤 지나자 마침내 해방이 되었다.⁹²⁾

91) 변명식(1928년생, 경기 여주)

92)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3) 해방의 감동과 귀환과정

조병창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해방 당일에 해방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사무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본사람들 옆에서 라디오를 듣고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각자의 귀환 조치에는 차이가 있었다. 공장 밖의 공사장이나 하역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일이나 그 다음날 바로 귀가를 할 수 있었지만,⁹³⁾ 공장에 있던 군속들은 8월 말까지 보름동안 귀가를 할 수 없었다. 조병창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약간의 ‘퇴직금’을 받았지만 먼저 나온 사람들은 전혀 받지 못했다는 차이도 있다.

조병창 인근에 동원되었던 학생들은 해방 당일 바로 귀가하였다. 전진수는 어느 날 작업하다가 내려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학생들을 인솔하던 담임선생님이 ‘경성역으로 갈 준비를 해라’라고 했다. 해방이니 전쟁이 끝났느니 이런 말은 없었다. 그날 점심 메뉴는 쌀에 납작보리를 넣은 밥과 까만 콩자반이었다. 서울로 간다니까 마음이 울렁거리려 점심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점심을 먹자마자 바로 나와서 그랬는지 다행히 바로 옆에 있는 부평역에서 전부 기차에 탈 수 있었다.

부평역에는 승객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었고 기차는 기관차 앞에 태극기를 십자로 겹쳐 걸고 다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일장기에 서툴게 검은색으로 껌을 그려서 태극기로 모양으로 바꾼 것이었다. 해방이 된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선배들이 존경스러웠다. 학생들은 해방이 되고 집에 간다는 생각에 전부신이 났지만 그 때는 수줍어서 노래를 부를 줄도 몰랐다. 정작 해방이 되었는데 ‘독립’이라는 단어 자체를 알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다. 식민지 생활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성역에 내려서 본 광장은 온통 들떠 있었다. 해방 만세! 해방 만세! 하고 목이 터지게 외치는 함성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외는 달리 할 말을 찾지 못했다.⁹⁴⁾

지영례는 3년 가까이 조병창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어느 날 서무과장과 일본인 직원들이 작은 소리로 수군수군하는 게 분위기가 좀 이상했다. 일본사람끼리 몰려다니고 그날따라 일하는 게 달라 보였다. 일본이 항복한 걸 자기들끼리 알려주느라 그랬던 것 같다. 조선 사람들도 죄다 모여서 수군수군하다가, 서무과의 조선인 반장이 ‘일본 놈들이 쫓겨 가게 되었다’고 말해서 해방이 된 걸 알았다. 그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하나 둘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부평의 산곡동 일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팽과리를 치면서 해방이 되었다고 외치고 밤새 골목마다 돌아다니고 난리여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다음 날 부터는 조병창의 공장도 멈추고 병원도 안 하게 되어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

하역작업을 하던 유만종은 8월 15일 그날로 ‘석방’이 되었다. 사람들이 다 일본이

93) 해방 후 보성전문 학생들 중 일부도 당일 밤에 조병창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상의, 「아시 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 25, 2016.8, 204~205쪽 참조.

94) 전진수(1927년생, 경기 고양)

망했다고 말했다. 일본사람들이 그냥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전부 풀어줬다. 여비도 받지 못했고 옷차림도 집에서 입고 갔던 그대로 옷이 너덜너덜해졌다. 집에 가는 길에는 하역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김포사람 대여섯명이 같이 갔다. 가다보니 점점 신이 났고 입에서 저절로 노래가 흘러 나왔다. 국민학교에서 배웠던 우미유카바도 부르고 기미가요 같은 일본노래들을 부르면서 걸어갔다.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싶었는데 아는 노래가 그것밖에 없었다.

배수로 공사를 하던 김학수도 8월 15일 당일에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먼저라고 말할 틈도 없이 공사장 일행이 그대로 보따리를 싸서 부평역으로 갔다. 그런데 기차에는 이미 지붕 위예까지 다 사람이 타고 있어서 탈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걸어서 집으로 향해 가다가 길에서 하룻밤을 잤다. 이튿날 걸어서 수원역에 도착했는데, 기차역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8월 16일,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보았다. 기차역에는 일본으로 가려고 모인 일본 군인들이 가득했다. 그 때는 그들이 밉다고 뭐라고 말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시미즈구미의 사무직이었던 오상기는 1945년 8월 15일 12시 사무실에서 방송을 듣는데, 중대방송이 있다고 하는 말이 들렸다. 사무실에 있던 예닐곱명의 일본인들이 다 라디오 앞에 모여 있어서 오상기도 그 뒤에 가서 들었다. 방송에서 일본 천황의 목소리는 잘 안들렸지만 항복한다는 내용임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방송이 끝나자 일본인들이 돌아서서는 그에게 ‘가서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입을 막는 시늉을 했다. 조선인들이 몽둥이라도 들고 몰려와서 두들겨 팼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하지만 오상기는 그날 밤 퇴근한 동료들에게 해방이 되었다고, 얼마 안 있으면 집에 가게 된다고, 떠들지는 말라고 일러주었다. 숙소에서 사무실이 가까이 있던 오상기는 16일에도 사무실로 나갔지만 굴을 파러 다니던 다른 사람들은 일을 나가지 않았다. 일본사람들은 겁을 단단히 먹고 있었으므로 조선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지 못했다. 결국 그날 조선인들에게 모두들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 해방이 된 걸 다들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정식으로 집으로 가라고 한 것이다.

출발 전 회사에서는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쌀을 한 뒷박씩 주면서 인심을 썼다. 쌀을 가지고 가려는데 한쪽에서 마구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 났다. 사람들이 ‘그 쌀 가져가면 우리는 어떡하느냐, 굶어죽는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시미즈구미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는 함경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한 말이었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시미즈구미에서 뽑아서 데리고 온 것 같았다. 이어 회사에서는 돈을 주었는데 은행에서 바로 찍은 새 돈이었다. 착착착 소리가 나는 새 돈을 주면서 차비를 하라고 했는데, 받으면서 의외로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수부에 다니면서 받았던 월급보다 많은 액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시킨 것도 있고 해코지하지 말라고 주는 것 같았다. 95)

16일 저녁 작업장에 있던 사람들이 거진 몰려나와 바로 부평을 떠났다. 그곳은 소사라고 불렀고 복숭아가 많았다. 차편이 없었으므로 서울 방향 사람들이 같이 모여

95) 오상기(1927년생, 서울 종로)

밤길을 걸어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해방되었다고 좋아하면서 물도 떠주고 복숭아도 주고 했다. 해방된 그맘때는 복숭아가 나오는 철이었다.⁹⁶⁾

해방이 되면서 조병창 공장 안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좋아서 춤을 추면서 소화(昭和)가 손들었다고 난리였다. 일본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말을 못하고,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쏘지는 않았다. 조선 사람들도 돈이나 좀 많이 주기를 바랐을 뿐 일본 사람을 구타하거나 싸우는 일은 없었다.⁹⁷⁾

8월 15일에 사람들이 모여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 1공장 사무실에 있던 김상현도 라디오를 통해 일본 ‘천황’이 우는 듯한 목소리로 연합군에게 손을 들었다고 하는 방송을 들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둘러보니 공장장 채병덕이 울고 있었다. 생각이 많아 보였다. 해방이 되었지만 바로 집에 가지 못했다. 해방된 이후 집에서는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여러차례 귀가를 독촉하는 전보를 양성소로 보내왔다. 집에 가고 싶었지만 양성소에서 내보내주질 않아 귀가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조병창에 가서 일은 하지 않고 양성소에서만 지내고 있었으므로 조병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름 가까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마침내 모두 청산하고 해산한다고 하여 조폐공장에서 막 찍어내서 잉크도 미처 마르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새 돈을 나누어 주었다. 그 때 17원 정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돈으로 17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1년 5개월 노동의 결과였다. 해산한 후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갔다.

윤용관은 옷이 오른 얼굴이 아직 붓기가 빠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해방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조병창에서는 해방이 되었어도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나올 수가 없었다.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되는지 몰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얼굴이 부은 채 기차를 타고 조병창에서 나와 영등포로, 대전으로 해서 공주로 돌아갔다. 동네 사람들이 해방이 되었다고 태극기를 들고 트럭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만세를 부르곤 했다.

왕명근도 해방이 되자 어서 집에 가고 싶었지만 바로 귀가하지 못했다. 기차가 실어다주지 않는 이상 갈래야 갈 수가 없었다. 조병창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므로 귀가를 위해서는 기차를 이용해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기차가 조병창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나갔다. 1공장, 2공장 별로 날짜가 따라 있었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가는 지역별로 칸을 구분해서 기차를 탔다. 곡식을 실어 나르던 화물칸에도 기차 위에도 사람들이 타고 나왔다. 조병창에서 나오기 전에 이불이나 모기장 같은 비품은 모두 버릴 것이므로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고 해서 그는 모기장을 싸왔다. 조병창 주변에 모기가 많았으므로 방에서 치고 자던 큰 모기장이었다. 월급은 받지 못했지만 해방 후 집에 오기 전에 돈을 받아서 그거라도 가지고 집으로 올 수 있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시골에서 오막살이 대신 새 집을 장만하였다.

96) 오상기(1927년생, 서울 종로)

97) 왕명근(1927년생, 전북 익산)

최덕원도 어느 날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면서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해방이 되자 조병창 모든 기계의 생산 작업은 중단되고 서울에서 오던 대학생과 중학생도 전혀 오지 않았다. 군속들만 남아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해방이 되었으므로 어서 집으로 보내주었으면 했지만 매일 기계 청소만 하도록 했다.

일본사람들은 먼저 소각장에서 자기들 서류와 종이 박스 등을 전부 불살라 없앴다. 서류는 낱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철해서 책으로 만들어 정리해 보관한 장부들을 뭉치로 가져다 태웠다. 퇴직금 받기 직전인 27, 28일 경에도 서류를 태웠는데 그 양이 상당히 많아서 리어카처럼 물건 실어 나르는 것에도 싼고 나와서 하루 종일 태웠다. 소각장은 각 공장마다 바로 옆에 있었다. 다른 일은 군속들을 시켰지만 서류는 사무실에 있던 일본인들이 직접 다 정리를 하고 불태웠다. 그 외 공장 청소에는 며칠이 걸렸다. 간부들은 군속들에게 총 만드는 기계를 청소하도록 시켰다. '이게 다 너희들이 나중에 사용할거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깨끗이 닦도록 하였다. 집으로 보내주지는 않고 해방된 이후 할 일이 없으니까 날마다 그 일만 시켰다. 공장에는 기름 묻은 것이 많았으므로 기계를 닦은 천이나 입었던 옷가지도 소각장에서 불태울 때면 연기가 많이 나고 냄새가 나면서 확 타올랐다. 공장에서 나온 부스러기들은 전부 기름 덩어리여서 불에 잘 타고 연기가 펴펴 났는데 서류는 그렇지 않았다.

그 당시 소문에 의하면, 일본 '천황'의 종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용산의 20사단사령부에서는 미군들이 인천에 상륙할 경우 일전불사라고 하면서 비밀리에 무장을 하고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조병창도 아마 20사단 산하에 있었던 듯하다. 그런데 일본에서 조용히 귀국하라고 명령을 했는지 한동안 잠잠하였다. 그사이 조병창에서도 시간이 지나갔다. 당시는 해방이 되었지만 질서유지는 여전히 일본군인들, 일본행정관이 다 좌우했다.⁹⁸⁾

최덕원은 조병창에서 해방 후에는 대우를 잘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해방이 되었지만 한동안 어떻게 되는건가 하고 걱정되고 답답하였다. 8월 20일이 되어도 불안한 감이 있었지만 귓속말로만 말할 뿐 크게는 말하지 못했는데, 28일쯤 되니 일본에서 명령이 왔다고 하면서 내일 모레 조병창을 모두 정리하고 군속들을 각자 고향으로 보내준다고 했다. 그러더니 29일쯤 줄을 죽 묶어 놓고서는 군속들을 세워놓고 돈을 나누어주었다. 만 2년을 일한 사람으로 치면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 돈으로 몇 십만원은 되었을 것이다. 평소 주었던 월급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었다. 또 기숙사 일성료의 방 하나마다 리어카를 하나씩 주면서 그곳에서 사용하던 이부자리와 식기를 나눠가지라고 하여 큰 '니쿠사쿠'에 꺾꺾 개서 집어넣었다.

8월 30일 조병창 안으로 화물차가 수없이 들어왔다. 전부 화물 싣는 창고차로 석탄을 때서 운행하는 기차였다. 그 화물차를 경부선, 경원선, 경춘선 등 지역별로 칸을 구분해 군속들을 태웠다. 그 중 천안에서 장항까지 가는 사람이 타도록 경부선의 뒤쪽 일부에 화물차 두 칸을 배정하였다.⁹⁹⁾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은 또 다른 칸에

98)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99)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의 집 방향으로 가는 기차는 지금은 장항선이라고 부르는 충남선이었다. 경남철도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천안에서 장항까지를 충남선이라고 불렀다.(구술내용 중에서)

타도록 하였다. 해방 후 38선이 만들어졌는데, 조병창에는 이북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사람과 경기도 위쪽 사람도 있었다. 일성료의 같은 방 사람 한명은 철원 사람이었는데, 철원도 일부는 북쪽이고 일부는 남쪽이었다. 다행히 그는 남쪽 사람이었다. 지역별로 기차를 타는데, 10시경 열차가 출발하자 그곳에 조병창장과 제1제조소장, 제조소장 가족들이 나와서 환송을 했다.¹⁰⁰⁾

기차는 부평에서 서울로 해서 수원을 거쳐 천안으로 갔고 장항으로 가는 열차 두량을 거기에서 떼놓았다. 전라도와 경상도로 가는 차는 더 갔고, 경남철도주식회사 화통이 와서 두 칸을 달고 온양에 가서 내려주고 예산에서 내려주고 홍성에서 내려주고 주포에서 내려주고 하였다. 주포에서는 4명이 내렸는데, 인솔자였던 일본 육군 소위가 내려서 손을 붙잡고, 창장님이 너희들을 부모님께 꼭 인계하고 오라고 명령했는데 보다시피 그럴 수가 없으므로 부모님 만나서 잘 살라고 인사를 했다.¹⁰¹⁾

한편 조병창에서 탈출한 이후 숨어 지내다가 해방을 맞은 장화두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조병창에 올라가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지만 올라가지는 않았다. 겁에 질려 뽕뽕이를 돌다가 해방이 되니 너무나 좋았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기능자양성소에 있었던 양성공들에게 집에 가기 전에 1인당 얼마씩 돈을 줬다는 말과 1공장장이던 채병덕이 그곳에서 청년들을 모아 육군창설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¹⁰²⁾

해방된 기분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이 좋았다. 김학수가 8월 16일 집에 돌아와보니 동네 사람들이 뒷동산에 올라가서 횃불을 놓고 “만세, 만세” 하면서 소리를 쳤다. 만세소리가 저쪽 산에서 이쪽 산까지 울려 퍼졌다. 해방 후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다.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면장집을 죄 때려부수고 창고도 뜯어버리고 장독까지 깨버렸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그냥 쫓아와서 지게를 때려 부수고 나무를 못하게 막았던 산림과 사람의 집도 마찬가지로였다. 해방이 되자 정거장이니 학교 마당이니 장터니 할 것 없이 주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서 요란했다.¹⁰³⁾

최덕원이 8월 말에 기차를 타고 갈 때도 기차 정거장마다 동네사람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고 해방이 되었다고 풍물을 치면서 춤을 추고 야단이었다. 이것을 일본사람들이 말린 곳이 있고 못말린 곳도 있었다. 최덕원은 8월 30일에 집에 도착하여, 조금 있으니 추석이 되었다. 동네에는 그동안 지원병 갔던 사람, 군인 갔던 사람, 징용 갔던 사람, 보국대 갔던 사람들이 속속 오기 시작하였다. 죽은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다들 사지에서 살아서 돌아온 것이 좋아서 희희낙락하였다.

그의 집은 보령 읍내에서 살았으므로 주변에 일본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 왜정 때 일본인들은 조선에 와서 평평거리고 지내는 사람이 많았는데, 보령 읍내에도 일본 시고쿠에 딸린 작은 섬 출신으로 조선에 와서 총독부 지원으로 서해안 간척지를 막고 구수제수리조합을 만들어 팔천석꾼 부자가 된 井田이라는 일본인이 살았다. 해방 후 마을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井田의 집에 모여 귀국할 일을 논의하곤 했다. 그런데 해

100)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101)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102)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103) 김학수(1927년생, 경기 여주)

방이 되니 아이들도 일본사람들을 하찮게 보았다. 어느 날 아이들이 동네 사람에게 미움을 사던 그 집 응접실 창문에 돌맹이를 던졌다. 그런데 그가 나와 개울가에서 놀고 있던 징용, 징병 다녀온 청년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젊은이들이 화가 나서 그 집 현관문에 돌맹이를 던져 문이 부서졌고, 일본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했다. 이후 청년들이 일본인 집을 한집 한집 찾아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괴롭혔다. 일본인들은 대천에 있던 일본부대를 불러오느니 하면서도 그 이튿날부터 속속 지역을 빠져나갔다.¹⁰⁴⁾

5. 결어

이 글은 구술을 바탕으로 일제 말기 국내 강제동원의 가장 대표적인 현장인 인천조병창의 구성과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경험세계에 대해 규명한 논문이다. 조선에 설치된 유일한 무기공장이었던 인천조병창은 1939년부터 공장을 건설하면서 인천 주변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데 이어 1941년 개창 이후에는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거나 관련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전국에서 강제동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천조병창에 동원된 모든 조선인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해당된다.

구술은 인천조병창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취한 방법이었다. 구술의 과정에서 90이라는 나이로 인한 물리적 한계는 적지 않았다. 가늠이가 먹어 면담자가 목소리를 높여 질문을 해도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만 이어가는 구술자도 있었고, 지방 멀리까지 구술을 채록하러 갔는데 당일 약속을 잊고 병원으로 향하던 구술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말을 듣고 싶었다. 새로운 내용을 듣기 어렵다 해도, 6·25 전쟁의 기억과 혼재한 잘못된 기억을 떠올린다 해도, 한조각 한조각 그들을 통해 얻는 사실만이 지금으로선 인천조병창의 강제동원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구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기억이 매우 선명한 데 놀랐다.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을 뿐 70년 전 경험이 그들에게 깊은 상처로 각인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각자 인식의 편차도 있고 기억력의 차이도 있지만, 담담하게 이어간 그들의 구술 한마디 한마디는 풍부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하였다. 고령자인 그들을 대상으로 구술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이 글에서 언급하는 12명의 경험은 개인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전체의 경험이기도 하다.

일제하 조선인의 동원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주로 성인남성을 중심으로 일본 지역을 비롯한 국외로 동원된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당시 노동력 동원의 실상은 국외보다는 오히려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역할해야 했던 조선 국내로 연인원 650만 여명이 동원되어 그 숫자가 월등히 많았다. 아시아·태평양전쟁기 노동력 강제동원의 현장인 국내 작업장은 무려 8천여 곳에 이른다.

104)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지금까지 거의 진전되지 않은 국내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외의 동원에 비해 그곳에 동원되어 직접 종사했던 사람들의 구술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실제 동원의 대상, 방법, 과정, 노동현장의 시설 규모나 구조, 동원 인원, 동원 대상자의 작업장 배치와 작업 내용, 강제동원과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그들의 인식 등 대부분의 측면이 아직 미지 상태이므로 이들의 구술을 통해서만 대규모로 행해진 강제동원의 실상을 각각의 현장에서 하나씩 밝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인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술자를 찾는 것은 향후 몇 년 이내에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면 그 규명 작업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이 글 역시 인천조병창으로의 강제동원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술을 진행하였고, 그에 바탕해 내용을 엮은 것이다. 구술자 숫자는 일부에 불과하고 그들의 기억이 온전하기도 어려우므로 구술을 통해 얻는 내용 또한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구술자 각자의 구술 내용을 교차하여 검토하면서 동원과 노동의 과정을 확인하다보면 그 진상을 점차 파악할 수 있고, 일제 말기 강제동원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면담의 과정에서 얻은 뜻밖의 수확이 있었다. 꿈에서라도 한번쯤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기억하기 싫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가 고려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또 다른 측면도 있을 것이다.

■ 구술자별 면담 날짜와 장소, 동석자

김상현 1회차 2017년 7월 6일, 서울시 양천구 사무실
 김상현 2회차 2017년 7월 27일, 서울시 양천구 사무실
 김우식 1회차 2017년 8월 23일, 충남 청양군 자택, 부인 이금례
 김우식 2회차 2017년 8월 31일, 충남 청양군 자택, 부인 이금례
 김학수 1회차 2017년 7월 14일, 경기도 여주시 자택, 부인 민순기
 변명식 1회차 2017년 8월 8일, 서울시 서대문구 자녀택, 김현석
 오상기 1회차 2017년 7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자택 주변 카페, 김현석, 김규혁
 왕명근 1회차 2017년 8월 3일, 전북 익산시 자택, 김현석
 유만종 1회차 2017년 7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자택 주변 카페, 딸 유선영
 윤용관 1회차 2017년 8월 3일, 전북 익산시 자택, 김현석
 장화두 1회차 2017년 8월 14일, 경남 창원시 자택, 김현석
 전진수 1회차 2017년 8월 1일, 서울시 서대문구 세미나실
 지영례 1회차 2017년 7월 25일, 인천시 동구 자택 주변 서점, 며느리 이영애, 장희숙

최덕원 1회차 2017년 8월 9일, 서울시 광진구 자녀택
최덕원 2회차 2017년 8월 23일, 충남 보령시 자택

‘구술로 보는 인천조병창과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경험’에 대한 토론문

손민환(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최근,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반환 문제는 부평구, 인천시를 넘어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에서는 반환 이후 활용 계획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병창으로부터 이어지는 역사성에 대한 전문 연구는 한발 물러서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발표된 본 연구는 향후 지역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조병창에 강제동원된 노동자 12명의 경험 세계를 토대로 동원과 정과 조병창의 구조, 노무자 구성과 노동실태, 강제동원과 노무자의 저항 등으로 재구성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이 이 발표를 통하여 많이 해소되었고, 또 제 좁은 소견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점들을 새롭게 자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문은 사실상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도 언급하셨듯, ‘관련 자료를 찾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조병창에서 직접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내부의 실상을 전해줄 수 있으므로 그들의 구술은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동의와 공감을 표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부평에 근무하면서 조병창 관련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는 바,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술자 증언의 정확성과 신빙성 문제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지난 2017년 조병창 경험자 12명에 대한 구술조사를 실시하셨고, 이를 토대로 각각 지영례, 김우식에 대한 구술 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 더욱이 경험 시점과 구술 시점의 격차가 큰 경우 구술의 정확성과 신빙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구술자의 가치관에 의하여 기억이 왜곡되거나, 혹은 의사와는 상관 없이 기억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조병창은 일제의 침략전쟁이 극에 달하던 1940년대 초반부터 해방때까지 존재했습니다. 부지 매입을 기준으로 하면 1939년부터, 창설을 기준으로 하면 1940년 12월부터, 개창식을 기준으로 하면 1941년 5월부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5~8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조병창의 경험이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독특한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증언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거듭 말씀 드리지만, 조병창 관련 자료 수집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구술자가 고령인 관계로 한시라도 많은 구술을 수집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술한 정보를 사실(史實)로 인식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발표자께서도 역사학자로서 이 점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사실 관계 확인에 많은 공을 들였을 것입니다. 구술을 진행하시며, 혹은 구술 내용을 재구성하시면서 구술자 증언의 정확성과 신빙성 판별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발표문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조병창 도면의 부재입니다. 인천조병창에 속한 평양제조소의 경우 도면이 남아있으나, 인천조병창은 현재까지 도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립 기록이나 건축물 현황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건축물이 있었고, 그곳에서 어떠한 노역이 있었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몇몇 구술을 통해서 극히 일부분에 대한 정보가 전해질 따름입니다.

부평의 대표적 강제동원 흔적인 미쓰비시제강의 경우, 그나마 몇가지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미쓰비시가 인수했던 히로나카상공의 공장 배치도, 이규원의 자전적 소설 「해방공장」(1948년)에 기재된 공장 구성(제관공장, 기계공장, 목형공장, 포탄공장, 도장공장, 창고, 사무실 등), 미히로나카상공에 이어 미쓰비시제강에서 근무한 고 송백진이 작성한 도면 등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지역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경우, 12명이나 되는 조병창 경험 구술자의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조병창을 대표할 수 있는 구술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사 시점이었던 2017년 당시 찾아낸 최선의 구술자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문에는 조병창 내 각 건물의 위치, 규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증언이 포함되어 더욱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를 테면 다음의 내용입니다.

“제1제조소 아래에는 3개의 공장이 있어”(8), “부대시설로 기숙사, 병원, 매점 등이 있었고 2킬로미터 정도 거리를 둔 곳에 기능자양성소를 설치”(8), “조병창 정문은 부평역 방향으로 나 있었다”(8), “철문으로 된 정문 양 옆으로는 기둥이 있었고”(8), “셋문 옆에는 초소가 있고”(8), “1,2공장은 가까운 곳에 있었고, 3공장은 조금 떨어져 있었다”(9), “조병창 안에는 땅굴이 여러 개”(10), “무기를 쌓아놓는 창고도 여러 개”(10), “1945년 총탄, 탄약을 만드는 공장 시설이 들어섰다”(10), “기능자양성소는 조병창과 별도로 2킬로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산곡동 산 밑에 설치”(10), “기능자양성소에서 조병창으로 가는 길 중간에는 안으로 조금 들어가서 형무소가 있었는데”(10), “조병창의 병원은 개천 옆에 있는 흰색의 2층 건물 한 채를 따로 쓰고”(11), “2공장의 규모가 가장 컸다”(13), “기능자양성소 옆으로 독을 하나 사이에 두고 사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19), “기숙사에 머물던 일반공들도 있었다. 그 숙소는 일성료라고

불렀다”(20)

물론 그들의 구술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들의 구술을 토대로 조병창에 대한 도면을 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각 구술자에게 조병창 시설에 대한 도면을 그려달라고 요청하여, 이것을 하나의 도면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면 조병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3.

경험자의 발굴과 추가 구술 작업의 필요성입니다. 오래전 기억에 대한 구술은 한조각 한조각의 퍼즐을 맞추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기억의 왜곡과 변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구술자의 기억을 수차례 검증하여 쪼개고 자르고 합하여 사실(史實)을 그려내야 합니다.

결국 많은 구술자를 발굴하여 추가 구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史實)에 다가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발표자께서 조병창 경험자에 대한 구술 작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그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계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발표문을 읽으며, 과거의 조병창과 지금의 조병창 부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본군이 주둔하던 곳에 해방 이후 미군이 주둔했고, 현재 그 부지의 일부는 미군과 국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부지 반환이 논의되고 있는 미군 캠프마켓, 그리고 부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국군 3보급단, 제1113공병단 157공병대 등도 조병창 부지에 포함됩니다.

‘군’의 존재가 그동안 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을 유발하였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개발의 물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차체와 군의 협조하에 위 부대들에 남겨진 조병창의 옛 시설과 강제동원의 실상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부평 캠프마켓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곽경전(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조병창과 미군 주둔의 역사

일본제국주의는 팽창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 한반도를 강제점령하고, 이도 모자라 중국을 침략했다. 이때 필요한 중일전쟁의 군수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1930년대 말 중일전쟁의 배후 기지로 부평지역을 선정하고 대규모 병기제조시설인 조병창을 건설했다. 이 시설은 건설 당시 일본 본토를 제외한 최초의 병기제조 시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부평지역을 선정한 것은 해안가에 가깝지만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이어서 은폐된 지형이라는 것과 철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평의 조병창에서 제조된 병기를 산만 넘으면 곧바로 항구를 통해 화물선에 선적할 수 있고, 철길을 통해 부산과 만주까지 연결이 가능한 지리적 조건이 일본을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이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에게는 엄청난 군수물자가 필요했다. 특히 일본 본토는 미공군기들의 공격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반도에 군수기지를 건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계획에 의해 일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조병창을 확장했다. 이후 부평지역의 조병창은 중일전쟁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며 가장 많은 군수물자가 필요한 태평양전쟁에도 군수물자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1945년 8월 15일, 치열했던 태평양전쟁에서 밀린 일본의 무조건 항복선언 이후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 한반도에 진주했다. 이때 부평에 있던 조병창은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들에 의해 점령되었다.

미군이 본격적으로 부평에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것이다. 부산항에 들어온 미군들이 일선에 배치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다수의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 주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일제가 부평을 조병창 부지로 선택한 것처럼 미군도 조병창 위치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조병창 즉 부평역 앞을 넘어 동암역 북광장까지 미군시설로 확충했는데, 이를 애스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운 미군부대였다.

인천항을 통해 들어 온 미군들은 애스캅에 일정기간 머문 후 일선 각 부대에 배치되었다. 이와 함께 애스캅은 미군과 한국군을 비롯한 유엔군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을

보급하는 보급창 역할을 담당했다.

애스캄의 전체적인 규모는 부평역 앞과 백마장 까지 에서 동암역 북광장 근처까지로 알려져 있다. 부산항에서 전선까지 이동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여서 부평의 애스캄에서 머물다 한국 전체로 이동배치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전쟁에 투입되었던 주한미군은 한국에 설치된 주한미군 부지에 주둔할 병력을 제외한 미군이 서서히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후 70년대 주한미군은 대거 철수하기 시작했는데 애스캄도 부대규모가 축소하기 시작했다. 애스캄은 축소되어 캠프마켓이라는 이름의 보급부대로 부평역 앞에 자리잡았다.

애스캄에는 121 이동병원이 있었는데, 미군이 철수하며 용산미군기지로 자리를 옮겼다. 121이동병원은 70년에 제작된 미국 코믹드라마 M.A.S.H(Mobile Army Surgical Hospital)의 배경이었다. M.A.S.H는 당시 최고의 인기 코믹드라마로 이때 나오는 한국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직도 미국의 노년층들에게 남아 있다고 한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캠프마켓과 환경오염

2011년 5월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씨가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상북도 왜관의 미군부대인 캠프 캐럴에 다이옥신을 매립했다. 이와 같은 스티브 하우스씨의 증언에서 촉발된 다이옥신 문제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들어 낸 독극물 중 가장 강한 맹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티브 하우스씨의 증언은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다이옥신을 매립한 곳이 경북 왜관지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 딛고 사는 전국 곳곳에 다이옥신이 매립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었다.

이 와중에 캠프 캐럴에서 반출된 고엽제 오염 토양을 캠프마켓에서 처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가 공개한 미군공병대 문건에서 중금속 오염 물질 등을 캠프마켓에서 처리했다는 내용이 함께 어우러지며 인천지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인천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인천시와 부평구가 캠프마켓 외곽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진행했다. 캠프마켓 내부의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외곽만 실시하게 된 이유는 내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환경부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 까지 1차, 2차에 걸쳐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환경부가 캠프마켓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공개를 거부하다 2017년 10월 일부를 제외하고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DRMO 일부 부지에서 다이옥신이 10,000 피코그램 이상이 검출된 것이다. 독일 등에서는 공원용지 등의 다이옥신 기준치를 100피코그램 이하로 정화하고 있다.

결국 인천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국방부와 환경부와 협의한 끝에 100 피코그램 이하로 정화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770여 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오염정화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오염정화업체가 정화 일정을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올 하반기에 실험정화를 한 후 이 결과를 가지고 20년 상반기에 오염정화 시설을 설치하여 21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다이옥신만 중요하고 다른 오염물질은 가벼운 것은 아니다. 중금속 등과 함께 발암물질에 속하는 또다른 중금속 등 오염물질도 검출되었기 때문에 오염정화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캠프마켓의 최종 오염정화 일정을 2023년으로 준비하고 오염정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하게 정화를 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근대문화유산

일제 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조병창 시설의 일부였던 88정비부대의 자리(현 부평공원)에서도 지하갱도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공원 조성과정에서 흘러나왔다.

이런 와중에 캠프마켓에도 땅굴, 즉 지하갱도가 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이 목격자들은 캠프마켓에서 몇 십 년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들이 목격한 지하갱도는 아마도 일제 강점기 시절 조병창에서 생산된 군수물자들은 해안가로 이동하기 위해 연합군의 폭격으로부터 은폐하기 위해 건설한 것으로 보여진다.

캠프마켓의 전신은 조병창이었다. 조병창의 부지와 건축물들을 모두 인계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캠프마켓 안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 건축되었던 건축물들이 존재한다. 물론 미군의 필요에 따라 많은 건축물들이 철거되고 새롭게 건축되었지만 일부 건축물들이 남아 있다. 90년대 문화재 전문가들이 캠프마켓 내부의 지장물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이후 미군들의 필요에 의해 일부 건축물들이 변경되었지만 우리 측에 의해 근대건축물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진행된 적은 없다. 지난 2014년, 반환 이후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및 활용차원에서 기본조사를 추진한 적이 있었으나 미군 측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건축된 시설물들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남아 있는 시설물들은 많지 않다. 88정비부대(부평공원 자리)의 건물들이 일제 강점기 시절 건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캠프마켓의 일부 건물들의 양식이 철거된 88정비부

대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군이 주둔하며 운영했거나 새로이 건축한 시설물 들 중에 미래를 위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건축물 들을 보존 함으로써 역사의 기억을 보존할 수 있다.

대중문화 공간로서의 부평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은 미국 대중문화의 집산지였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곧이어 벌어졌던 한국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문화가 파괴되고 외부 문물과 접하며 창조적인 문화가 탄생하기 어려웠다. 한국전쟁을 통해 진주한 미군들로 인해 미국의 대중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과거의 우리 문화가 파괴된 상태에서 몇십 년 동안 미국의 대중문화만이 우리에게 유입되던 시절이기도 했다.

미군부대마다 부대 내부와 밖에 미군들이 여가를 보내는 클럽들이 수 십개 있었다. 이 중 부대 내에 위치한 클럽들은 한국의 공연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해 공연 하도록 했다. 빈곤생활을 겪던 공연자들에게 애스컴의 클럽 오디션은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때의 클럽 오디션은 오늘날의 오디션 프로그램 이상의 영향을 끼쳤다. 부대 밖에서의 공연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몇 배를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활하며 공연을 하던 공연자들은 관객인 미군들이 좋아할 만한 장르의 공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맘보, 차차차, 불루스, 모던 재즈, 컨트리, 소울 등의 공연이 클럽 공연의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 애스컴이 있던 부평이 한국 대중음악의 시초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의 무대에 선 음악가들이 한국 대중음악에 미국의 음악을 소개하거나 접목하면서 다양한 음악을 선보였고, 이들은 1980년대까지 한국 대중음악계를 이끌었다.

이들로 인해 한국의 대중음악은 새로운 감각으로 K-pop 이라는 장르를 만들어 내며 세계 각국에서 K-pop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 부평이라는 지역과 캠프마켓이라는 공간을 더해 새로운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단순히 문화공간이라는 이름만으로 양산 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시키는 문화공간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었으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현재와, 미래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부평과 캠프마켓의 공간은 문화의 역사와 기억 속의 공간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일제말기의 강제동원과 부평의 조병창 사람들

박명식(부평문화재단 이사)

1. 잊혀진 땅에 대한 고찰

외부 세력 및 특정 집단에 의해, 즉 제국주의 집단에 의해 형성된 조병창과 캠프마켓은 뼈아픈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장소이다.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침략으로 수탈과 학살 등 끊임없는 피해를 받아왔고, 광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략적 점령 지역이었다. 조병창과 캠프마켓은 이러한 신생 독립 국가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으며, 힘없는 분단국가의 단면을 보여준다.

민족이 자기 힘으로 쟁취한 광복이 아닌 주어진 해방일 때 감당해야만 하는 허망함이라는 것을 우리의 땅은 알고 있다.

영토권 · 주권을 상실한 시대에 일본은 폭력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위한 조선병참화기지로 부평을 활용하였으며, 조병창과 캠프마켓은 배신과 탐욕으로 민족의 운명을 팔아넘긴 친일의 역사와 함께 한다.

일제에 35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는 동안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타국 땅에서 이름 없이 죽어 갔으며, 일본군 위안부와 더불어 많은 조선의 민초들이 강제로 전쟁터와 군수공장으로 끌려가 나라 잃은 설움을 그대로 받아야했다.

부평의 한가운데 위치한 캠프마켓 부지가 한국 근현대사의 수난을 상징하는 잊혀진 땅 · 금단의 땅에서 100여년 만에 부평시민들에게 차츰 다가오고 있다. 애스컴시티의 전신은 일본육군조병창이다. 일본육군조병창의 규모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못했다. 다만, 광복 후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며 일본군 시설을 주둔지로 이어 사용했기 때문에 미군 주둔지의 범위가 일본육군조병창의 범위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조병창 · 캠프마켓에 대한 관심은 높으며 역사적 의미를 파악해 역사화 하려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 미군과 관련된 군

사 시설인 관계로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이 지역은 특정 집단의 기억 속에서 부정적 · 갈등의 장소이며 부(負)의 역사(Dark History)로서 여겨지는 지역이다.

일본은 본토와 식민지 및 점령지등 제국 영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전쟁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실시한 강제동원 및 비극적 · 폭력적 강요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 등의 전쟁유적에 대한 사실을 인정도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등을 제출을 거부하여 일본육군조병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땅은 부(負)의 역사를 알고 있다.

2. 구한말 · 일제강점기하의 부평지역 공간 및 인구의 변화

1800년대 말까지 부평은 도호부(都護府)로 인구 1만여 명의 전원마을이었다. 경기도 수원진관(水原鎭管)에 소속하고 속읍(屬邑)으로 인천도호부를 거느렸다.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부천시 전역 · 공항동 · 구로구 · 광명시 일부까지 행정구역이 확립된 1413년(태종13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 부평의 속현들을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보면 김포시 하성면 · 통진읍 · 대곶면 · 구 김포읍 · 서울시 양천구 · 영등포구 · 금천구로 이어진다.

500여 년을 유지해오던 조선의 군현제는 부평도호부를 모태로 하면서 인천부 일부와 통합되어 부천군(富川郡)이 되는 1914년에는 전국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행정구역 변화를 맞이한다.

1883년(고종 20) 개방된 인천의 제물포 개항장은 많은 사람들과 문물이 출입하는 통로였다. 특히 수도 서울과 소통하는 관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였다. 1899년(광무 3) 9월18일 경인철도가 개통하고, 1883년 폭 2m인 경인로 개설되고, 1914년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였지만, 부평군 지역은 수도권에 속하여 경성으로의 흡인력이 강하였고, 개항 이후 에는 서울과 인천에 두 지역으로의 구심력에 이끌리는 위치에 있었다. (Straw Effect)

경인철도와 경인로 개통 당시 「경인철도」가에서 보면 소사와 부평의 넓은 들은 경인철도 연변의 한 시골 풍광을 연상케하는 한적한 곳 이었다.



〈 1895년 23부제 실시 〉



〈 1968년도 인천시 구제 실시 〉

〈 고지도에 나타난 부평도호부 관할 면 〉



조선시대에 전국적인 규모에서 면 단위의 행정구역을 알려주는 최초의 자료는 18세기 중반에 편찬된 「여지도서」이다. 1789년에 편찬된 호구자료인 「호구총서」에도 면 상황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부평부는 조선후기 이래 1914년까지 부내면·동면·석천면·석곶면 등을 포함하여 모두 15개의 면을 관할하였다.

〈1759년(영조 35) 「여지도서」〉

면 이름	방리	거리	호	남	여	현재 위치
부내면	2	-	214	380	353	계산동 지역
동면	8	동 5리	163	265	296	임학, 병방, 박촌, 방축, 용종동

당산면	5	동 10	136	197	209	동양,굴현,하야,상야,평동
주화곶면	5	동남15	173	310	323	내촌,오쇠리,오곡리,대장리
상오정면	7	동남20	126	273	234	오정리,내리,도당리,삼정리,약대리
하오정면	7	동남20	184	303	350	원종리직리,여월리,고강리
수탄면	12	동 30	185	316	370	천왕,고척,개봉,오류,궁리,온수리
옥산면	7	동남30	164	297	319	범박,항동,소사,괴안,벌응절,조종,표절
석천면	6	남 15	196	370	349	상리,구지리,중리,심곡리
동소정면	5	남 20	162	290	346	대정리,마분리,항동,구산리
서면	7	남 5	155	280	281	가현,신대리,화전리,작정리,갈월리, 후정리
마장면	3	남 10	90	146	166	효성리,산곡리,청천리
석곶면	8	서남20	326	565	646	가좌,번작,고잔,포리,가정,신현리,율도
모월곶면	8	서 20	357	571	683	공촌,심곡,연희,고잔,검암,시천,백석, 난지,청라,웅도
황어면	7	북 15	288	463	622	독실,목상,역동,갈산,오류,이화,노오지, 다남,선주지,장기리

1760년(영조 36) 「여지도서」에 나타난 인구 수는 2,923호에 10,898명(남 4,928명, 여 5,970명)이고, 1842년(헌종 8) 「부평부읍지」에는 호구 수가 3,164호로(조선 시대 평균가구 수 4명 적용) 82년 동안 호구 수가 241호 증가하여 인구 수는 964명이 증가한 셈이다. 이는 별반 인구의 증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1871년(고종 8)에 이르러 1760년보다 (2,757호 7,996명-남 4,577명, 여 3,419명) 호구 수 및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한말 호구와 인구 수는 조세 부과로 인한 상당 할 만한 숨겨진 편호(編戶)의 성격이 있어 실제 호를 파악하는 데는 차이가 있고, 서울은 개항장의 배후 지역으로 경인 철로와 경인로 설치로 인한 한반도의 시간·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지만, 1910년 전후까지 부평의 공간이나 인구의 변화는 큰 변화 없이 옛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인천의 다른 시기는 부평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지 않지만 「인천부읍지」에서 보면, 1899년(광무 3)에 이르면 인구는 20,189명으로 1871년(고종 8)의 인구 9,150명 보다 2배 이상의 인구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개항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1907년(융희 1)의 「한국호구표」는 일제 침략에 저항하는 세력을 단속하기 위한 치안상 목표와 함께 호세의 증가를 통한 세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호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1900~1918년대 일제의 토지 조사는 조선에서의 농업 식

민을 위한 실태조사이며,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국주의 산업정책의 종속변수로서 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요에 적합한 상품작물화정책(미곡, 면화, 양잠)을 목적으로 토지개혁의 일종인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신고주의에 입각한 토지조사사업은 조선농촌사회에서 농민층이 극심하게 분해와 반봉건적인 영세농 및 소작관계의 재편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부평지역은 국내외 지주·자본가의 토지집적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시기였고 토지상품화가 활성화 되었다.

〈 1910년도 경기도 부평군 민적통계표 〉

구분	호수	인구	직업							
			상업	농업	어업	공업	일용직	기타	무직	계
	3,726	17,777	131	3,440(92%)	12	3	8	140	11	3,745

〈 일제강점기 옛 부평군 지역인구 〉

구분	1930년			1925년	1914년	증감
	남	여	계			
	16,657	13,652	28,379			

출전:조선국세조사보고(1930)

1930년의 인구는 1910년에 비하여 10,602명, 59.6%의 증가를 보이는데 매년 3%, 5년에 15%, 10년에 30%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셈이다. 일제강점기에 상당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918년 일본의 쌀폭등을 계기로 일본 내의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미곡증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1920년대 일제의 조선산업정책은 산미증식계획(産米増殖計劃)에 집중하게 되었다. 일제는 조선 농업을 식민지적 미곡단작형(米穀單作型)으로 재편하고 조선을 상품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식료품 공급지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1925년 부평수리조합의 설치하여 몽리면적이 초기 4,120정보이고 몽리면적을 계속 확대시켜 나갔다. 양수기를 수원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전국 최대의 수리조합이었다. 부평은 수리시설 확충으로 인한 몽리면적의 증가는 노동을 필요로 하기에 지주·소작인의 증가가 이어져 1930년까지 외지에서 들어온 상당한 노동인구의 증가를 보았다. 1937년 당시 경기도 지주제의 실태에서 볼 때 조선인 지주가 93%를 차지하고, 일본인·일본회사의 경지면적점유율이 훨씬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대지주의 농장에는 수백 명의 소작인(86%)들이 소속되어 있

다. 갈수록 소작농민들의 처지는 점점 더 열악해졌다. 수리조합의 설치는 일본산업에 필수적인 값싼 미곡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 이었으나, 조선에서는 조세부담, 고율의 소작료와 수세 부담, 조합비 및 비료비 부담 등 조선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조선농민의 황폐화를 가져왔다. 또한 미곡수출량의 급증으로 농민 춘궁(春窮)이 일상화되어 농민 경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 이에 고율의 소작료 부과에 따른 지주제 문제는 민족적인 측면 못지않게 계급 측면이 심각했던 것을 볼 수 있으며, 일부는 소작쟁이를 일으켜 저항하고 사회운동에도 참여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토지상품화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주의 토지집적이 확대되어 가는 반면, 많은 자작농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 되거나 도시로 이주하여 임노동자가 되거나 만주를 비롯한 해외로 밀려났다. 이에 비해 일본인의 토지소유는 크게 확대되었다. 지금도 일본인의 이름의 지명으로 남아 있는 고니셋(小西)말, 반전(半田)농장, 천일(天日)농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본자본주의의 조선식민지 지배의 모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조선내부에서 농업의 해체로 나아가, 농민층은 전반적으로 몰락하여 갔다. 식민지 농정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어, 농촌과잉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공업화정책 추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1930년대에 들어와 일제에 대항하는 농민조합의 투쟁, 지주제의 모순 등으로 농민경제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 점과 1930년대 초반 이후 부평지역의 군수공업화가 농촌사회의 지주소작관계하에서 농업노동력과 농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부분 중의 하나이다.

3. 1930~40년대 아시아 · 태평양전쟁하의 경인공지대의 변화

1868년 1월 3일 메이지 유신에 의해 메이지 정부가 설립되고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발효되기 전까지의 79년간을 가리키며 천황을 국가 원수로 받들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로 만들자는 부국강병의 기치 아래 근대화와 발전을 이룩한 시기와 군부에 의해 1931년도부터 도발된 아시아·태평양전쟁의 패망한 1945년을 전후 한 시기를 일본제국주의 시대라고 한다.

일제하의 인천은 1910년~1930대까지 정미업등 식품공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우까기(宇原)총독이 재직한 1930년대 전반에는 조선의 내부요인과 1929년 이래의 세계적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자본주의는 만주사변 등 중국침략을 감행하고 전선에

가까운 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고자 공업화정책이 추진되었다. 우가끼 총독은 농공병진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조선의 자본력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일본자본을 유치하였고, 인천과 부평지역은 이러한 대규모 일본 자본이 들어와 경인공업지대의 중심지로 개발되고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경인지역은 점차 중공업부문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천지역은 주로 광산기계, 차륜, 전기기계, 전동기, 특수강, 철도차량, 아마방직공장이 설립되었고, 부평지역에는 수도용 강관, 광산기계, 금속제품, 연와, 동경자동차, 국산자동차, 디젤자동차 등의 자동차공장과 무기를 제작하는 일본육군조병창 및 군수하청업체 등이 1941년 5월5일에 개창되게 된다. 이는 부평지역이 군수공업지대의 중심지로 변화를 의미한다.

1942년경 조선 내 총21개 기계기구 제작 공장 가운데 인천과 부평에 위치한 것은 9개로 이는 모두 1937년 이후에 설립된 것이다.



〈 경인시가지계획령 〉

경인공업단지 및 부평공업단지는 일제의 조선공업정책 전환의 결과 설치된 것이다. 경인공업단지는 1930년대 전반 우가끼총독 시대에 중화학공업의 확장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부평공업단지는 1930년대 후반 미나미(南) 총독 시대 군수공업의 확장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일제는 식민지 공업화의 과정에서 여러 지역에 공업지대를 형성시키고자 하였지만, 공업지대로서 확립된 것은 함경남북도의 조선북부공업지대와 경인공업지대가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각각 한반도의 남북을 대표하는 공업지대로 조선북부공업지대는 전력 및 자원을 입지조건으로 하여 중공업, 화학공업지대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경인지역에는 일찍부터 공장이 설치되어 생상활동을 하여 왔는데, 1934년 조선시가 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의 창설 및 확장과 병행하여, 경성과 인천의 중간지역에 광대한 면적의 공업용지가 조성되었다.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약 2489.3만 평의 지역이 조성되면서 공업용지로서 998.4만 평이 마련되었다. (「조선경제연보, 1940년판」 : 구로지구 173.6만 평, 시흥지구 19만 평, 소사지구 94.7만 평, 부평지구 272.2만 평, 서곶지구 239.2만 평, 계양지구 94.1만 평, 양천지구 105.6만 평)

경인공업지대는 수도권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부문 간의 균형을 살리면서발전하였으며, 그 이점은 공업제품 특히 소비재의 판매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풍부한 노동력이 존재한다는 점, 철도의 기점인 경성과 항로의 기점인 인천항이 위치하여 교통의 요지로서 원료와 제품의 운송에 편리하다는 점, 풍부한 한강의 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조선총독부가 위치하여 각종 행정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부평은 넓은 평야를 낀 농업생산지대였다. 1920년대에는 부평수리조합이 설치되고 저습지에서 모리면적의 확대로 미곡증산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공업화 정책의 추진에 의하여 부평지역을 포함하여 경성과 인천 사이의 넓은 공간은 공업지대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부평역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경인철도 역 가운데 가장 늦은 1934년도였다. 1934년 부천군 약대동에 경성전기주식회사 변전소가 세워져, 여기서 전주를 서운동 - 계산동 - 작전동 - 갈산동 - 부평역으로 송전하여 전기가 처음 들어왔다. 경인 간의 역사(驛舍) 중 부평역이 맨 마지막에 전기가 들어올 정도로 부평지역은 농촌의 영역이었다.

1934년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부평지구 272.2만 평이 공업용지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부평지역이 군수공업의 중심지가 된 것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난 뒤였다. 1938년 오오사가 철사공장 부평평야로 진출 결정 보도와 이 지역에 경인지역 공업화에 따라 여러 생산공장이 진출 상황에 부천군에서는 부평번영회를 조직하여 경인일원화 실현과 공업지대 형성 발전을 꾀하고자 하였다. 「동아일보, 1938년 6월 3일자」

인천 · 부평이 대륙병참기지의 중심으로 각종 공장이 진출하여 동양의 중심적 공업

대도시로 건설되어 감에 따라, 부평평야에도 계속 공장이 진출하였는데 1939년의 경우 인천제재주식회사 등 20여 개의 공장이 2,000여만 원의 거액을 투자하는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 1938년7월23일자」

부평평야가 중공업 공장지구가 되면서 대소 공장이 집중 건설되자 이곳에살던 6,249호의 농가가 농토를 잃게 되었다. 지주나 자작농은 토지보상을 받게 되지만 5,000여 소작 농가는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동아일보, 1939년 10월 11일자」

조선총독부는 1940년 1월 경인시가지계획을 발표하였다. 핵심은 7개의 공업용지 조성지구와 11개 주택지 경영지구, 그리고 부내면 부평역전 부근 832,000평의 토지구 획정리지구 계획이었다.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경인시가지계획이 준비되는 와중에 ‘경인일체화’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며, 경기도는 대륙병참기지 정책에 맞춰 1939년부터 부평일대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과 이에 따른 주택지 경영을 추진해 갔다. (부평지구의 토지를 평당 2원50전~4원50전에 일 반에 분양 결정해 공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평에 히로나까 상공(弘中商工)이 토지를 매수해 공장 건설에 들어 갔다. 「매일신보, 1938년 6월1일자」 지금의 부평공원 자리이다. 1938년 착공해 1939년 완공됐으며 근로자는 1088명이었다. 히로나까 상공의 주 생산품은 철도차량 과 광산기계였다. 부평역에서 공장으로 이어지는 철로가 놓인 것도 이 무렵이다. 그러나 히로나까 상공은 얼마지나지 못해 미쯔비시(三菱) 중공업에 매각됐다. 미쯔비시 중 공업은 이후 미쯔비시(三菱) 제강주식회사를 분리하고 부평공장을 상인천제작소(上仁 川製作所)로 이름을 바꿨다. 히로나까 상공과 미쯔비시 공장이 운영될 당시 지금의 부평2동에는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사택도 건설됐다. 그 명칭이 아직도 남아 현재도 ‘삼릉(三菱)’이라는 지명으로 불린다.

한편, ‘디젤 자동차 조선제작소’도 부평에서 가동을 시작했다. 일본에서 부품을 들 여와 반 조립상태으로 판매대리점인 국산자동차로 인도하면 이곳에서 나머지를 완성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1941년 중순에는 자동차와 전차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 공장도 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였다.

이밖에도 동양자동차 공장이 1939년 11월 기공식을 가졌고, 「매일신보, 1940년3 월27일자」 오오사카 철사공장이 부개동 일대 토지 매수계약을 끝내는 등 1929년 한 해동안 20여 개의 공장이 부평지역에 투자를 진행 중이었다.

대규모 공장의 건설은 공장 근로자들과 자녀들을 위한 학교 신설을 필요로 했다. 이에 따라 부평에 동(東) 소학교를 건설하기로 예정하고 교사(校舍) 건설에 필요한 대지를 마련하였다. 여기에 히로나카 상공과 국산자동차공장에서 2만 5000원의 설립 자금을 내놓아 1940년 봄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그 동안은 임시 교사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다른 곳과는 달리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다니는 학교로 구상되었다. 「매일신보, 1940년 3월 3일자」

부평지역이 인천부의 구역확장됨에 따라 부평출장소 설치가 1940년 3월 부평역 인근에 설립되고, 8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할 수 있는 부평공회당도 1940년 4월에 공사에 들어갔다. 인천시내에서 주안까지만 운영되던 시내버스가 부평 공장지대까지 연결된 것도 이 무렵이다. 인천부에 편입된 부평은 1940년 4월 부평지역은 모두 정명(町名)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3개출장소가 새로 설치됐다. 부내면은 모두 11개의 정(町)으로 통합되었다.

무엇보다도 부평지역이 군수공장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1939년 일본육군조병창이 설립되면서였다. 1940년 4월 1일 부천군 부내면을 인천부에 편입시키고 조병창의 확장공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인 하청업자는 관동조(關東組), 다전조(多田組), 옥조조(玉操組), 청수조(淸水組), 간조(間組) 5개 업체가 맡았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국민총동원령을 내려 근로보국대를 편성하여 이 공사에 투입하였다. 근로보국대는 전국의 시군별로 조직화하여 하청업체에 배치되었다. 당시의 신문기사와 문서를 통해 부평지역의 조병창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40년대 들어와 부평의 인구는 급속히 팽창해 가기 시작했다. 소화정(부평동)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의 인구가 6000명이나 증가했다.

「매일신보, 1940년 4월 24일자」

부평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월 평균 7~8000명의 증가율을 보였고 1940년대 한 해 동안 5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매일신보, 1940년 6월 22일자」

유동인구도 늘어나서 하루 평균 부평역을 드나드는 승객들이 2000여 명에 달하고 화물도 증가해 8월 무렵에는 현재 규모의 4배정도로 개축하기로 하였다. 「매일신보, 1940년 8월 3일자」

이 시기 일본 육군은 1939년 무렵부터 부평에 조병창 건설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주요 생산품은 총기류로 정하고 부지 면적은 약 100만 평을 예상했다. 월간 생

산 목표는 소총 20,000정, 경기관총 100정, 중기관총 100정, 총검 20,000정, 군도(軍刀)1,000개로 정했다. 이후 1945년까지 차량, 소총탄환, 포탄, 무전기, 피혁제품 등을 생산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군 제20사단이 관할하던 부평연습장(富平鍊習帳) 70만 8000여 평을 우선 이관받기로 하는 한편, 여기에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기 시작했다. 1939년 9월1일에 확정된 매수 예정 토지는 당시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산곡리 및 대정리 일대 약 33만 평으로, 부평연습장을 기준으로 볼 때 동쪽 약 24만 평, 북쪽 약 15만 평, 남쪽 약 4만 평이었다.

「토지 매수에 관한 건」, 육군대신 → 육군조병창장관, 1939년 9월1일(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조병창이 인수받은 부평연습장은 이미 1920년대 초부터 조성되었다.

「부평부근소연습장부지매수의 건」, 육군대신→조선군경리부, 1923년1월31일,

이곳에 시설도 들어서서 1936년에는 창사(廠舍)증설 공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연습장창사증설의 건」, 육군대신→제20사단경리부, 1936년8월13일

조병창은 1940년 6월을 넘어서면서 부터는 김포와 강화 등지에서 근로보국대가 소집돼 부평역 앞 일본 육군이 추진하는 토목 공사에 투입됐다.

「매일신보」, 1940년 5월 25일자

공사가 일단 마무리되면서 1941년 5월5일 개창식을 가졌고 이때 완성된 공장은 총검공장과 견습공 연습공장이었다.

「정비과 조선시찰보고」, 1941년5월

4. 이어지는 말

조병창의 건설에 맞추어 그 주변에 많은 하청 군수업체 공장 및 토목건축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서면서, 전국에서 노무자들이 부평으로 몰려들었다. 1940년대 이곳에서 거주한 노무자가 1만5천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국가총동원법 공포 이래 일제는 모집, 관알선, 징용의 다양한 형식으로 조선인을 강제동원하였고, 1944년 부터는 조선에서 현원징용과 더불어 일반 및 강제징용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곳 일본육군조병창과 화랑농장 인근 지하호 건설예정인지역 및 전국에 걸쳐 중등생들 뿐만 아니라 12세 어린이들을 비롯한 국민학교 재학생 · 졸업생들도 강제동원하는 등 상시적인 동원이 이루어졌다.

총선총독부는 1938년에는 국민학생들도 학도보급대 형식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한 10일간 동원하여 작업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1941년에는 1년 30일내 수시동원으로 확대되었다. 1943년 국민근로보국협력령 개정에 따라 동원 기간은 1년에 60일간으로 확대되었다가 다시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방책에 의해 1년에 4개월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44년부터는 1년 상시동원이 가능해졌고 결국 1년 통년을 원칙으로 하는 전면적인 동원이 실시되었다.

특히 부평조병창의 학생동원은 조선에서 추진된 학생 통년동원(通年動員)의 첫 번째 사례로서 주목된다. 경인일보 「일제, 초등학생을 징발하다」에 잘 나와 있듯이 와카타니 노리코(94,여)씨는 기억속 ‘부평의 과거’에서 증언하고 있다. 1944년 9월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7명의 여학생들을 찾고 있으며, 당시 인천송현공립초등학교 담임 교사로서 그들의 생존여부를 몰라 마음의 부담을 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전한다. 「경인일보, 2019년6월7일자, 식민지역사박물관 소장」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천조병창에서 종사하고 강제동원 되었는지 그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 적게는 3천 여명, 많게는 2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조병창을 비롯한 주변 공장지대에 근로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판자집이 늘어갔고, 새로운 주택단지와 마을이 형성되어 갔다. 그 예로 홍중사택 · 신촌 · 삼릉 · 영단주택 · 검정사택 · 디젤사택 · 다다구미 · 하촌 · 관동주 등이 근로자의 사택으로 현재까지 일부 남아 있어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산곡동 근로자 주택은 1941년 수탁사업으로 출발한 (주)경인기업에 의해 건설이 시작되었고, 이 설계와 감리는 조선주택영단의 젊은 한국인 기술자 2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선주택영단은 이 주택지가 완성된 시점에서 토지건물을 일괄 매입하고 있다. 그 시기는 1943년 11월 30일로, 등기는 다음 해 1월 20일에 이루어졌다. 영단은 이 주택을 인천조병창의 임대주택으로서 관리하였으며, 세대 수는 총 1,080세대였다. 5개유형(갑, 을, 병, 정, 무)을 공급하였으며, 갑(20평)과 을(15평)은 주로 일본인 관리나 사원을 위한 것이고, 병(10평), 정(8평), 무(6평)형은 한국인 노동자나 하층 서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갑(甲)형과 을(乙)형은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병(丙)형이하는 임대주택으로 하였다. 욕실은 갑형, 을형, 병형에는 내부화되었으나, 정(丁)형, 무(戊)형의 경우는 욕실은 없고 화장실은 가옥안에 설치하였다. 산곡동의 영단주택은 무(戊)형에

해당하고, 분양 이전까지 임대형식으로 매달 비용을 지급하였고, 개인으로의 불하는 1960년에 이루어졌다. 부엌-방 등의 구조로만 이루어진 연립형태이며, 주민들은 집밖 공중화장실을 사용한 점에서 일반적인 영단주택의 유형과는 다르다. ‘기역(ㄱ)자’형 구사택 48동 704호는 1943년에 완공하고, 신사택 ‘일(一)자형 216호는 일제강점기하의 조병창의 취지와는 달리 광복을 맞이 한 이후에 완성하였다.

청천동 검정사택은 ‘집 벽을 콜 타르을 먹인 종이로 지은 집들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의 ‘도깨비시장 일대’를 말한다. 도깨비시장은 옛날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물건을 팔 때 단속이 나오면 게논 감추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여 도깨비시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광복 후 자리를 잡은 부평미군기지 애스컴(ASCOM)은 조병창 근로자들을 미군기지 종업원들로 탈바꿈시켰고, 산업화와 함께 등장한 부평공단과 한국베아링,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등은 다시 산업화 시대의 근로자들로 마을의 주인을 바뀌게 했다. 시대의 굵이마다 산곡동 근로자 주택은 75년, 그 변화의 바람을 받아들이고 있다.

조선주택영단(1941) → 대한주택영단(1948) → 대한주택공사(1962) → 한국토 지주택공사(2009)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갔다.

일제강점기시기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별, 교육 기회의 불평등, 강제 징용 및 동원, 위안부 문제 및 사과 · 배상 등이 얹혀 있고, 현재까지도 일제강점기 체제의 잔재는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문화적 사회적 악영향은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계나 여론이나 국민들은 역사청산과 일본의 사죄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많은 강제동원 피해유족이나 시민들은 ‘왜 일본은 독일처럼 되지 못하는가’ 하며 안타까워한다. 패전 후 독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독일정부 차원에서 유대인 강제 동원 및 집단학살을 ‘전쟁범죄’로 인정한 적도 없다. 기억 · 책임 · 미래를 내세운 ‘독일미래재단’ 설립 이전까지 나치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았다. 일본과 같은 길을 걸었다. 가해국의 공통된 모습이다. 가해국 독일의 양심을 일깨운 것은 양심적인 독일인의 힘으로만 가능하지 않았다. 바로 피해국 이스라엘의 노력이 있었다. 이스라엘 국회가 1953년 야드바셈(Yad Vashem, “이름을 기억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1935~1945년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 자행된 강제동원의 피해 역사를 조사하고 전 세계와 인류에게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설치한 상설 조사기구 및 기념시설)을 설치하고 전쟁피해에 대한 자료를 축적했고, 이를 토대로 1990년대초 소송을 제기했

다.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만든 것이 바로 독일미래재단이다. 물론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은 지금도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같은 제2차 세계대전 피해국인 한국은 무엇을 했는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가만히 있으라’ 했다. 피해자들이 2004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연명 상태로 유지하다가 2015년 12월 폐지했다. 가해국 일본의 양심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했다.

일부 미쓰비시 사택 및 캠프마켓에 남아 있는 조병창 시설·화랑농장 지하호 보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은 많이 사라진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유적을 역사기억공간(어두운 역사-Dark History)을 남기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존과 활용을 둘러싼 논의 과정은 시민들의 높은 역사의식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귀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평의 조병창과 캠프마켓 지역은 향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여 할 귀중한 전쟁유적이다. 세계시민들이 평화의 마중물로, 반전평화의 교훈을 공유하는 장소로 가꾸기 충분한 유적이다. 가해국 일본은 원폭돔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2015년에는 강제동원 현장마저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오히려 유네스코 정신을 훼손하고 피해국가 국민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아시아태평양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생산하고 수송했던 역사를 가진 부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함으로써 평화를 견인하는 또는 세계인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를 위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조병창·캠프마켓 시설물을 훼손없이 그대로 반환받는 과정과 유네스코등재를 위한 장기적 플랜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작업도 필요하다.

부평은 인천과 다른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도시로 성장했다. 일제의 조병창, 미군의 애스컴과 캠프마켓의 아픈 역사를 겪으면서 부평의 타자성(他者性)이 형성되어 가는 것은 지난 100여 년간 외부세력에서 오는 힘에 대한 자아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야 말로 과거의 강대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저질러졌던 잘못된 역사를 되새기며, 민족의 운명을 자기 안일의 수단으로 이용한 친일파 사대주의자들을 국가적 청산하는 발돋움의 될 것이다. 또한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것이 내일을 위한 산 교훈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경인공업지대화와 일본조병창의 역사」, 이상의,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 2018. 11.
2. 「부평사」 2007. 11. 16.
3. 「부평역사박물관 2014년도 학술총서」 2014. 11.
4. 「부평 산곡동 영단주택의 건축학적 조명」도미이 마사노리 2017. 11. 29.
5. 「미쓰비시 사택의 가치와 미래 그리고 부평」학술토론회, 2019. 3. 22.
정혜경 (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 연구위원)